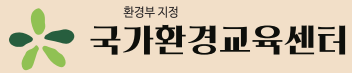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범교과학습
통합(연계) 교육
활성화 포럼

일시 2020. 11. 23.(월)
14:00 ~17:0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범교과학습
통합(연계) 교육
활성화 포럼

일시 2020. 11. 23.(월)
14:00 ~ 17:00



목 차

I. 포럼 일정	05
II. 개요	06
III. 발제자료	07
[발제1] 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미래 과제 정성준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장학사	07
[발제2] 학교 안전교육 현황 및 미래 과제 한종극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학교안전센터 대표	23
[발제3] 학교 통일교육 현황 및 미래 과제 임정진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연구사	33
[발제4] 학교 민주시민교육 현황 및 미래 과제 이쌍철 /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	45
[발제5] 학교 환경교육의 현황 및 미래 과제-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선경 /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55
[발제6] 범교과 통합블럭 신설 방안 이재영 / 국가환경교육센터 센터장(공주대학교 교수)	69
IV. 토론문	97
[토론1] 김자영 / 공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97
[토론2] 김현수 / 부산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103
[토론3] 서헌주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장	109
[토론4] 이승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연구실장	117
[토론5] 박동명 / 환경부 환경교육팀 사무관	127

I. 포럼 일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범교과학습 통합연계 교육 활성화 포럼

일정	내용	비고
14:00~14:10	[개회식] 내빈소개 및 인사말씀 - (개회사) 국가환경교육센터 이재영 센터장	[사회] 환경교육지원처 김창수 처장
14:10~15:50	[발제1] 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미래 과제 - 정성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장학사 [발제2] 학교 안전교육 현황 및 미래 과제 - 한종극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학교안전센터 대표 [발제3] 학교 통일교육 현황 및 미래 과제 - 임정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연구사 [발제4] 학교 민주시민교육 현황 및 미래 과제 - 이쌍철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 [발제5] 학교 환경교육의 현황 및 미래 과제-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이선경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발제6] 범교과 통합블럭 신설 방안 - 이재영 국가환경교육센터 센터장(공주대학교 교수)	
15:50~16:00	[휴 식]	자리정리
16:00~16:55	[토론] 차기교육과정에서의 범교과 학습 내실화 방안 (좌 장) 조우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본부장 (토론자) 김자영 / 공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김현수 / 부산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서헌주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장 이승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연구실장 박동명 / 환경부 환경교육팀 사무관	지정토론 후 발제자 포함 종합토론
	[종합토론]	
16:55~17:00	[폐회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광호 사무총장	

II. 개요

□ 배경 및 목적

-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의 범지구적 환경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해 통합적 접근과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특히,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생존권, 행복추구권의 보장을 위한 다양한 가치 추구 및 차기 교육과정에서의 범교과 학습의 강화 방안과 전략을 함께 모색하고 추진하고자 함

□ 포럼개요

- (공동주최) 국가환경교육센터·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주요내용)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통합적 교육의 실현
 - (발제) 범교과 교육 현황 및 통합적 교육방안
 - (토론) 차기교육과정에서의 범교과 학습 내실화 방안

□ 토론패널

번호	구분	성명	소속
1	좌장	조우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본부장
2	토론1	김자영	공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3	토론2	김현수	부산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4	토론3	서헌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장
5	토론4	이승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연구실장
6	토론5	박동명	환경부 환경교육팀 사무관
7	발제1	정성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장학사
8	발제2	한종극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학교안전센터 대표
9	발제3	임정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연구사
10	발제4	이쌍철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
11	발제5	이선경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12	발제6	이재영	국가환경교육센터 센터장(공주대학교 교수)

Ⅲ. 발제자료

발제1

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과제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정성준 장학사



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과제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사 정성준

1. 인권교육의 필요성

- 인권교육은 모든 사람의 존엄과 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과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 유엔은 <인권, 새로운 약속>에서 “인권에 대해 배우는 그 자체가 권리이고, 인권에 대한 무지를 강요하는 것이나 내버려두는 그 자체가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주춧돌이다” 라고 하고 있다. 인권에 있어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즉 인권교육이 가장 기초가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 사실 인권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인권은 사회적 가치와 시대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을 바탕으로 자유와 권리에 대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는 점이다. 누리고 지켜주기 위해 인권교육은 너무나 당연하고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의 향상은 인권교육의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2. 범교과 속에서 인권교육의 위치

- 범교과란 무엇인가?
- 범교과의 학습주제
- 유네스코의 지속발전 교육의 영역과 교육과정내 범교과 영역의 비교
- 범교과의 주제로서 인권교육

‘범교과’란 무엇인가?

- 학교의 교육과정은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수시로 바뀌는 교육 과정은 교육현장에 혼란을 일으키기에 하나의 교과로 개설하기는 힘든 주제들이 범교과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안전교육’, ‘민주시민교육’등을 들 수 있다.
- 사회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한다 라는 요구가 학교현장의 하나의 교과목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야 하는 주제로서 반영이 되고 이것이 바로 범교과 학습 주제(cross-curricular learning themes)가 되는 것이다.
- 범교과 주제는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요구와 사회적인 요청에 의해서 교육과정에 반영되는 학습주제로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학습주제가 38개로 선정되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여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0가지의 대주제로 범주화 하였다.

범교과 학습의 주제

범교과 영역	세부내용
1. 안전·건강교육	안전·재난(7대안전), 보건, 성교육, 영양·식생활
2. 인성교육 (한자·정보통신활용교육)	효도와 공경, 생명 존중 의식 교육, 우월적 지위 남용, 예방교육, 부모 교육, 정보 윤리 교육, 한자·정보통신활용 교육
3. 진로 교육	진로탐색과 진로 설계, 여가 활용
4. 민주시민 교육	헌법 정신 및 법질서 존중, 청렴·반부패 문화 형성 민주주의, 공정과 정의, 시민적 관용, 권리와 책임 등 민주시민성 함양 교육, 존중·자율·연대의 시민적 가치 실천 교육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2018.11.13., 부총리결재)
5. 인권 교육 (노동인권)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 장애인 차별 예방, 폭력예방, 양성평등(일·가정 양립문화), 유엔 안보리결의 1325호, 노동인권
6. 다문화 교육	다양성의 존중, 세계 시민교육 및 국제 이해교육, 다문화 이해 및 상호존중
7. 통일교육	통일과 평화, 국가와 민족문화
8. 독도 교육	국토 개념, 독도 이해 및 사랑
9. 경제·금융 교육	합리적 경제활동, 소비자의 책임과 권리(소비자 교육), 창업(기업가)정신, 복지와 세금·금융생활·지적재산권, 사회적 경제, 평화경제교육
10.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동물보호 및 복지)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교육, 물 보호, 에너지 교육, 해양 교육, 농업·농촌이해 교육, 산림교육, 생물 다양성, 생태계 보호, 동물보호 및 복지

유네스코의 지속가능 발전교육의 영역과 범교과 영역비교

	사회·문화적 측면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유네스코 핵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평화, 안보 ● 양성평등 ● 문화적 다양성 ● 건강과 에이즈 ●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 ● 기후변화 ● 농촌개혁 ● 지속가능한 도시화 ● 재해 예방 및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 퇴치 ● 기업의 책임 책무 ● 시장경제
범교과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건강 ● 인성교육 ● 인권교육 ● 다문화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경제·금융교육
그밖의 범교과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교육 민주시민 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의영역과 범교과 학습의 많은 영역이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범교과학습이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대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범교과 학습은 절대적이다.

범교과 주제로서의 인권교육

- 인권교육이 10가지 범교과의 대주제로 선정된부분은 사회적, 교육적으로 중요한 부분임을 의미한다.
- 학교규칙과 학생인권이 대립(두발, 복장, 휴대폰등)되는 부분이 생겨나면서 학교에서는 공론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인권은 이제 교과서로만 배우는 것이 아닌 학생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을 주제로 배우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의 근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중요성에 비해 범교과학습이 가지는 한계로 인해 교육의 실효성에는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범교과 학습 관련 법령

연번	범교과 영역	주제	관련 근거(법령, 지침 등)
1	안전·건강교육	안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조 및 동법 시행규칙 2조 •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대한 고시(교육부, 2016.3.15.) •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안전교육시간을 하나로 통합·운영(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성폭력 방지법 등) • 영역별 이수시간의 20% 범위 내 자율적으로 조정·운영, 학기당 제시된 교육 횟수 이상 분산 운영 • 안전교육을 교과 활동과의 연계 운영 시 안전관련 지도내용 최소 20분 이상을 1차시로 인정 • 재난안전교육시 미세먼지교육 실시(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 예방 종합 대책, 2017. 5.12.)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3시간 포함·안전교육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보건법 제9조, 9조의2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제5조 • 2018년도 교육부 교육정책(2017.12.)
		보건 교육 (최소 1개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보건법 제9조, 9조의2 • 2018년도 교육부 교육정책(2017.12.)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 • 2018년도 교육부 교육정책(2017.12.)
2	인성교육	인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제6조
3	진로교육	진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4.5.) • 양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과 연계·통합 운영 및 교과 연계 진로교육 실시

범교과 학습 관련 법령

4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2항 ·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5	인권교육	장애이해교육 생명존중(자살예방)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2항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제17조
6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5조 · 세계인의 날(5.20)과 연계하여 다문화교육 주간 운영
7	통일교육	통일교육	·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 · 2018년도 교육부 교육정책(2017.12.) · 교과 4, 참체 6(10시간 이상 권장) · 통일교육주간(5월, 계기교육 2시간 확보), 호국보훈의 달(6월), 통일문화주간(10월), 꿈·끼 탐색주간(12월) 등 활용
8	독도교육	독도교육	· 초등 5-6학년 10시간 반영 권장 · 독도교육주간(4월, 1시간 이상 계기교육 실시) · 독도바로알기 교재 활용 · 독도의 날(10월 25일) 유래
9	경제·금융교육	경제·금융교육	· 경제교육활성화방안(기획재정부, 교육부)
10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 지속가능발전 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t, ESD)에 대한 이해

3. 학교인권교육의 현황

- 교육부차원의 인권교육
- 시도교육청차원의 인권교육
- 교사차원의 인권교육

교육부차원의 인권교육

- 학교의 교육활동이 교육부의 교육과정 총론의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볼 때 교육과정상에서 인권교육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 교육과정상(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 내용 일부에서 인권을 주제로 하는 부분이 있으나 도덕과, 사회과의 일부분에서 다루어 지다 보니 교과의 특성을 벗어나는데 한계가 있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학습주제 10가지 안에 '인권'을 포함시켰으나 '인권' 영역에 장애이해교육*, 생명존중교육**을 법령으로 포함하여 장애이해와 생명존중교육(자살예방)만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인식개선교육) 2항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17조

시도교육청차원의 인권교육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학생인권 조례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학기당 2시간(연간 4시간)의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에서 초·중·고 과정을 모두 마친 경우라면 총 48시간의 인권교육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 하지만 범교과주제로 다른 교과와 재구성하여 수업을 하거나 교과서 재구성을 통하여 인권교육을 대체하는 경우 인권교육 자체로 진행되는 수업에 비해 질적인 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서울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옹호관 등 제도적인 기반이 갖추어져 있음(외형적으로나마)에도 수업시수의 확보 차원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아직 조례제정을 하지 못하거나 학생인권교육센터(이름은 다양함)를 갖추지 못한 시도교육청도 있으므로 인권교육에 대한 각시도의 상황은 모두 다르다.

시도교육청차원의 인권교육 활동의 예

-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예로 들면
- 학생인권교육 담당 : 인권교육담당 장학사 1명, 노동인권담당 전문관 1명
- 주요활동
 - 교직원 연수
 - 학생인권교육
 - 교육자료 개발 보급
 - 학생인권 권리구제(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조사관)
 - 각종 정책연구 용역, 실태조사,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등

교사차원의 인권교육

- 현장교사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노력
- 인권교사모임이나 직무연수를 통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역량강화
- 인권을 수업과 연계 지도 노력 및 학생의 인권문제에 꾸준한 관심

- 이러한 점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면이지만 학생들이 어떠한 교사와 수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깊이 있는 인권교육이 이루어 지기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일정한 체계를 갖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4. 현행 범교과로서의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한계

- 범교과 교육에 대한 부분을 살펴본 이유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학교현장에서 범교과 영역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범교과 학습이 학습의 주제로서 잘 진행되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범교과 학습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교육부에서 발간한 「교육과정 연계 범교과학습 주제 교수·학습 자료」 집에 나온 선행연구의 내용중 범교과에 대한 교원의 의견을 살펴보면

다수의 교원들은 학습부담 증가(61.6%), 교수 부담 증가(81.4%), 교과에 비해 교육내용으로서 중요하지 않음(60.8%), 기존 교육 내용과 유사 중복(79.8%), 지역 상황에 적절하지 않음(63.0%), 기존 교육내용과 유사 및 중복(79.8)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국가·사회적 요구라는 중요성에 비추어 교사들의 호응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순경, 2006). ※ 자료집 8쪽 인용

- 학교현장에서는 범교과 학습이 학생들에게 지도해야 할 중요한 학습내용으로 인식되고 교육이 진행되어지고 있다기 보다는 부담스럽고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비단 주제가 문제가 있다거나 교사들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라고 볼 수 만은 없다. 범교과가 가지는 모호성과 부담감 때문이다. 이런 부담은 어디에서 올까?

- 출처: 실천교사모임 <교사독립선언 - 두번째 이야기>(2016) 116~117쪽

< 2016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교교육과정 반영 요소(경기도교육청의 경우) >

영역	관련 법령 및 규정	반영요구 사수	비고
영양 식생활 교육	식생활교육지원법 26조 어린이식생활관리특별법 학교급식법	연 2시간 이상	
독서 및 정보이용 교육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각 학년별 교과분별 학기당 2시간 이상	
보건교육	학교보건법	초중고 1개학년 이상 17차시(1단위) 이상	
성교육	학교보건법 9조 경기도교육청 성교육진흥 조례	연간 20시간 이상(성폭력예방교육 4시간 포함)	
흡연 음주 등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아동복지법시행령 28조1항 학교보건법	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안전교육7대 표준안과 연계
학생응급처치교육	학교보건법		안전교육7대 표준안과 연계
장애학생인권교육	장애인복지법	연간 2시간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기당 2시간 이상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복지법31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28조1항	연간 4시간 이상(6개월에 1회 이상)	
가정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2항	연간 1시간 이상	안전교육7대 표준안과 연계
교통안전교육	아동복지법 31조 아동복지법시행령 28조1항	2개월마다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안전교육7대 표준안과 연계
세계인구의날 교육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진흥조례	세계인구의 날(7.11) 전후	
통일교육	교육부 통일안보교육내실화 기본계획	5월 4주	

영역	관련 법령 및 규정	반영요구 사수	비고
독도사랑교육	교육부 역사교육강화방안	독도의 날(10.25) 전후	
학생인권의날 행사	경기도학생인권조례 28조	공포일(10.5) 전후	
소방훈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14조	연간 2회 이상 훈련(1회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아동복지법 31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조3항	매월 5분단위 안전교육 실시(운영시간 정보공시에 보고)	
꿈 끼 탐색주간	진로교육법 12조	평가 종료 후 취약시기	
교육복지의날 행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만 시행
세월호추모주간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계획	참사일(4.16) 전후	
인문예술주간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진흥조례,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조례 6조 2항	학기말	
안전점검의날 행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6조의 3	매월 4일	
학생건강체력평가주간	학교체육진흥법 8조	매년 11월 이전	
제2외국어문화이해의날 행사	교육부 학사운영다양화방안	평가 종료 후 취약시기	
과학의달 행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과학의 날(4.21) 전후	
욕설 없는 주간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10월 중	
친구 사랑 주간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학기별 1회	
학부모 상담 주간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학기별 1회	

재난대비안전교육	아동복지법 31조	연간 6시간 이상(6개월 1회 이상)	안전교육7대 표준안과 연계
실종유괴예방교육	아동복지법 31조	연간 10시간 이상(3개월 1회 이상)	
생명존중교육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4조2항	학기별 1회	안전교육7대 표준안과 연계
학생인권교육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연간 2시간 이상	
진로체험교육과정운영	진로교육법 9~12조	연간 2시간 이상	
학업중단예방교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54조5항	학기별 1시간 이상	
인터넷중독예방교육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30조의 7	연간 1회	
안전교육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	연간 51차시 제시(표준안)	안전교육7대 표준안

- 법령과 지침으로 강제하는 과잉 교육으로 인해 정작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영역들이 그러 교육과정안에 어떻게든 담아내야만 하는 주제로 전락해 버리고 있는 것이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 오히려 중요하게 생각한 범교과 학습의 주제들이 학교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학습내용이 되어버렸다.

- 출처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 과제(안)> (2017) 103쪽

< 학교급단 법령이 요구하는 범교과 교육 시간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대비 비율 >

학교급	법령 요구 시간	창체 대비 비율	교육부/교육청 요구 시간	창체 대비 비율
초등학교	583	86%	1,096	161%
중학교	310	101%	637	208%
고등학교	310	76%	637	156%

(초등 6년, 중·고등학교 각 3년간 요구 시간임. 배당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초등학교 680시간, 중학교 306시간, 고등학교 408시간)

5. '더 나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권교육 만들기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범교과의 활성화의 필요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시대의 과제이다.
- 특히 포럼의 배경처럼 범지구적 환경현안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해 통합적인 접근과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음에도
- 현재의 교육과정 틀 안에서의 범교과 영역은 한계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차기 교육과정에서의 범교과 학습의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자 한다.

가. 과목중심 교과체계에서 주제중심교과로의 전환 (기반 다지기)

- 우리나라의 교육이 국영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냉소적인 이야기를 부정하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 대입을 위한 교과중심의 학교교육이 지금까지 이루어 졌다면 이제는 기존 교과의 과감한 조정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포함하는 주제중심의 교과목도 과감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
- 범교과학습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상 시간의 확보를 바탕으로 한 주제별 교육과정의 수립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차기 교육과정 수립 단계에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교육과정 수립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고민이 담겨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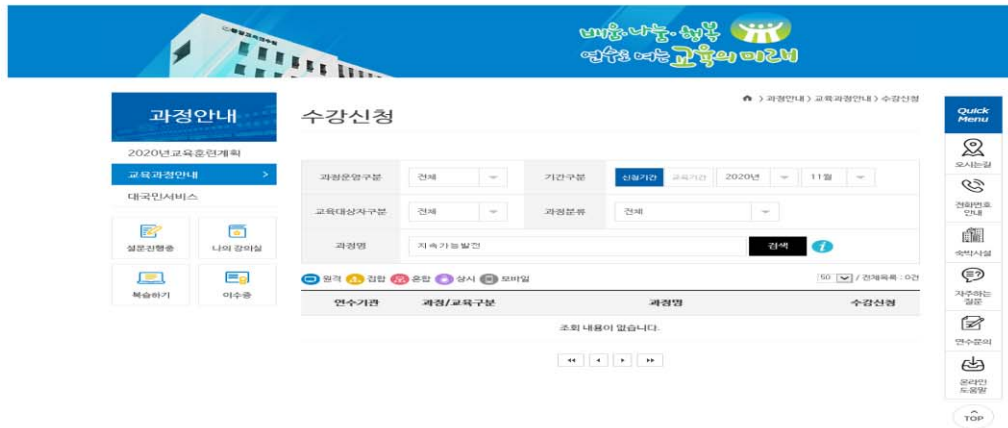
나.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위한 교원연수와 홍보 강화 (알리고 준비하기)

- 지난 2017년 제1회 유엔 지속가능발전 교육목표 이행 포럼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SDG4-교육2030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많은 논의와 이행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의제”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SDG4-교육2030에 대한 국내적 관심이 높아지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으나 학교 현장의 교사들의 이해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
- 이는 교사들의 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 교육청, 학교내에서의 홍보의 부재를 지적하고 싶다. 교육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현장교사들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와 연수를 진행하기를 제안한다.
- 교육부 홈페이지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검색어로 검색해보면 홍보와 교원연수가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 홈페이지 검색결과 - 2017년 뉴스 자료 1건 검색

The screenshot shows the search results on the Ministry of Education's website. The search term is '지속가능발전' and the results are filtered for the year 2017. The top result is a news article titled '제1회 유엔 교육목표 이행 포럼 개최' (1st UN Education Goals Implementation Forum Held), dated 2017.11.14. The article text mentions the forum was held at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KRIIS) on November 14th, 2017, with the theme of 'Sustainable Education 2030'. Other search results include '교육부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 발표' (Ministry of Education 2013 National Policy Implementation Plan Announcement) and '2017년 재정지원 대학 258교 발표' (2017 Financial Support for 258 Universities Announced).

중앙교육연수원 검색결과-연수과정 없음



다. 지속가능발전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 (현장에서 실천하기)

- 교육부는 초·중·고용 범교과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범교과 학습주제 교수학습자료'라는 이 자료는 학교급 및 각교과와 연계하여 내용을 구성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
- 교육부만이 자료를 만들어 현장에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한 자료들을 공유하고 최적화된 자료를 만들어 서로 공유하고 재생산되고 업데이트되는 것이다.
- 교육부나 교육청차원의 자료 및 프로그램의 제공은 교사들로 하여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 이후에는 풍성한 교육자료가 만들어지고 프로그램이 만들어 지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발제2

학교 안전교육 현황 및 미래과제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학교안전센터
한종극 대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범교과
통합(연계)교육 활성화 포럼

학교안전교육 현황 및 미래 과제

한 종 극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학교안전센터
(Korea Association for Community Education, School Safety Center)

I. 학교안전교육 현황

학교안전교육 관련 법규정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손상사고의 보상을 주로 다루었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2007. 1 제정)은 세월호 참사(2014.4) 이후 21차례의 개정을 통해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실행, 안전교육 실시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신설·강화함

「학교안전법」의 학교안전교육 실시 관련 조항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 5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서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이하 생략>

I. 학교안전교육 현황

학교안전교육 관련 법규정

「학교안전법 시행규칙」은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이라 불리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의 7개 주제에 관한 학교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학교안전법 시행규칙」의 학교안전교육 실시 관련 조항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교육시간·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1.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2.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3.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4.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5. 화재·재난 등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6.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안전교육
7.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이하 생략>

I. 학교안전교육 현황

학교안전교육 관련 법규정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의 안전교육을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성폭력방지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 관련 교육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통합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 또한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내용 및 방법, 교직원 등의 안전교육, 재난대비훈련,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학교안전교육 관련 사항

제3조(학생 안전교육) ① 학교의 장은 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별표 1】¹⁾과 【별표 2】²⁾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 관련 교육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통합 실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4조(교직원 등 안전교육)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3년마다 1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3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자는 매 학기 2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는 매 학년도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참여자의 안전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4조의1(재난대비훈련)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의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실적보고)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교는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서식1-1>과 <서식1-2>, <서식1-3>을 활용하여 매년 8월과 12월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와 재외한국학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2) 학생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I. 학교안전교육 현황

학교안전교육 관련 정책

지난 5년간 교육부는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른 학생 안전교육의 학교 현장 착근, 재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교직원 안전역량개발 등에 관한 학교안전교육 정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교육부 제1차(16~18) 학교안전사고예방 기본계획	
1	학교안전사고예방체계구축
2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2-1	안전교육의 현장 착근
2-1-1	발달단계별 안전교육 착근 지원
□ 체험중심 안전교육 학습자료, 교과서 개발 □ '안전교육 7대 표준안' 현장착근 지원 강화	
2-1-2	취약분야 맞춤형 안전교육 강화
□ 수상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예방교육 강화
□ 실습교육시 안전사고 예방 강화	□ 생활 속 안전위험 분야 예방교육 강화
2-2	체험위주 안전교육 강화
2-2-1	학교 재난대응 안전훈련 강화
□ 학교 맞춤형 재난대응 훈련계획의 수립 □ 실제상황을 가정한 맞춤형 대응훈련 시행	
2-2-2	안전교육 체험시설 확충
□ 안전교육 종합체험시설 확대	□ 이동식 안전체험교실 운영
□ 공공·민간 안전체험시설 활용	□ 단위학교 안전 체험교실 운영모형 개발
□ 안전교육 체험시설 설치·운영 시 건설명 지원	
3	학교구성원의 예방능력 강화
4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5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

교육부 제1차(19~21) 학교안전사고예방 기본계획	
1	안전한 학교 시설 확보 및 환경 조성
2	학교안전교육 내실화
2-1	현장중심의 안전교육 및 콘텐츠 활용 지원
2-1-1	안전교육 7대 표준안 활용도 제고
□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총론 마련 □ 학교급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 체계 정비	
□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활용도 제고	
2-1-2	수요자 중심의 안전교육 실시·강화
□ 주제별 안전교육 연구학교 운영	□ 학교 안전관리 교직원 연수 실시
□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실습교육 강화	
2-1-3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안전교육 디지털화 추진 □ 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2-2	교직원 학교안전역량 제고
2-2-1	교직원 표준 안전인수 모델 개발·적용
□ 교직원 표준 안전연수 모형 개발 □ 교직원 안전연수 전문기관 지정	
2-2-2	교직원 안전연수 지원시스템 구축
□ 교육 현장 중심의 안전연수 지원시스템 구축	□ 안전 분야별 전문강사 인력풀 구축
2-3	안전체험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
2-3-1	안전체험시설 확대
□ 안전체험시설 확충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 공공·민간 학생안전체험시설 활용 확대	
□ 소규모형·교실형 안전체험관 확충 지원 확대	
2-3-2	내실있는 안전체험시설 운영
□ 유관부처 협력을 통한 체험시설 인력 상호 교류 □ 안전체험시설 교육자료 개발	
□ 안전교육 체험시설 설치·운영 사업관리 강화 □ 안전체험시설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3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
4	학교 안전문화 확산
5	피해회복 지원체계 강화

I. 학교안전교육 현황

학교안전교육 실시 현황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의 안전교육 시간 배정은 학교급에 따라 다르나, 매년 51시간의 안전교육 실시는 학교급에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됨. 또한 '차시' 개념을 적용해 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학교현장의 부담을 완화함.

※ 차시 단위: 수업시간의 약 20%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초등학교는 10분, 중·고등학교는 15분 정도임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단위: 단위활동, 차시)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악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합계
교	유치원	13	10	8	10	6	2	51
육	초등학교	12	11	8	10	6	2	51
시	중학교	10	10	10	10	6	2	51
간	고등학교	10	10	10	10	6	2	51
횟수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참고: 1.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외 한국학교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경우는 인정되는 학력에 해당하는 학교급에 맞추어 실시한다.

2. 학교안전교육 실시 시간의 단위는 유치원은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단위활동이며, 초·중등학교는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차시이다.

3. 학교급별 제시하는 안전교육 시간은 학년별(유치원은 연령별) 실시해야 할 시간을 말하며, 횟수는 영역별 안전교육 시간을 학기당 제시된 횟수 이상으로 분산·실시해야 함을 말한다.

4. 학교(유치원 포함) 운영 성격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총 이수시간의 범위 내에서 안전영역별 이수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운영(20% 범위 내, 소수점은 올림처리)할 수 있다.

5. 재난안전교육은 재난 대비 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을 달리하여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을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6. 1단위활동 및 1시간(차시)의 수업 시간은 교육과정을 따르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I. 학교안전교육 현황

학교안전교육 실시 현황

학교현장에서 실시되는 학생 안전교육의 내용을 학교급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일부 교육내용은 범교과 학습주제(성교육, 보건교육,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 생명존중(자살예방))와 관련됨

학생 안전교육 내용 구성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	약물·사이버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유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 가정, 등하굣길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안전한 장소를 알고 안전하게 놀이하기 놀이구나 놀이감, 도구의 바른 사용법을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실종, 유괴 미야상황알고도움 요청하기 몸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알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지판 및 신호등의 의미 등 교통안전 규칙 알고 지키기 안전한 도로 횡단방법 알기 이륜차 운알고 지키기 교통수단(자전거, 통학버스 등) 안전하게 이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의 소중함과 정확한 명칭 알리기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알리기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알리기 나와 내 주변사람(가족, 친구 등)의 소중함을 알고 사생활 지키기 아동학대 신고 및 대처방법 알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바른 약물 사용법 알리기 생활주변의 해로운 약물, 화학제품 만지기나 먹지 않기 TV, 인터넷, 통신기기(스마트폰 등)의 중독 위험성을 알고 바르게 사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알리기 화재 발생 시 유의사항 및 대처법 알리기 각종 자연 재난 및 사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 알리기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의 중요성 및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일 알리기 인터넷 안전시설 현경 체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상황 알기 및 도움 요청하기 119 신고의 주변에 알리기 손뼉기와 손목기 등 질경이유지하기 상황별 응급처치방법 알리기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하게 교실, 가정, 공공시설 이용하기 학용품, 놀이용품의 안전한 사용 및 식품 안전 알리기 실질 학습 안전에 유의하기 안전한 놀이활동 및 야외활동 유괴예방, 미야상황 예방과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한 통학로 알기 교통수단(자전거, 대중교통 등)의 안전한 이용법 알리기 교통 표지판 등 도로 교통 법규 알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방법 알리기 학교폭력의 종류를 알고, 종류별 예방법 알리기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알리기 내용의 소중함을 알리기 아동학대의 유형 및 대처방법 알리기 가족폭력의 개념과 대처방법 알리기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올바른 약물 복용법 알리기 중독 징후를 알고 안전한 활용 방법 안전한 사이버 세계 능력 배양 및 사 용습관 형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의 원인 및 대피요령, 신고, 진 화요령 알리기 화상 대처 요령 알리기 각종 자연 재난과 안전행동 알기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험 유형별 대 처 요령 알리기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산업 재 해를 알리기 인터넷 안전시설 현경 체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처치의 상황, 의미, 중요성, 신고 조치 방법 알리기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법 알리기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하기 일상생활 속 응급처치 알리기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시설 이용 시 안전과 예의 알리기 식품의 종류에 따른 안전한 보관 방법 알리기 실질 학습 및 체육, 야기활동의 안전규 칙을 이해하고 바른 사용법 알리기 실종, 유괴, 미야상황 알고 예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륜차의 안전한 이용과 경정방법 알리기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법 알리기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 알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의 유형과 현황 및 위험성 인식하기 학교폭력 유형별 신고, 대처방법 알리기 자살 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 해소 방법 알리기 가족과 올바른 의사소통방법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알리기(아동학대포함) 성폭력 대처방법 및 대처방법 알리기 성매매의 위험성 인식하기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 피해 알리기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 피해 알리기 인터넷 게임 사용 규칙 만들기 및 실천 스마트폰의 안전한 사용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의 원인 및 대피, 대응요령, 신고, 진화요령 알리기 화상 대처 요령 알리기 각종 자연 재난과 안전행동 알리기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험 유형별 대 처 요령 알리기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 안전 문화의 필요성 산업 재해의 의미, 유형과 사별 발생 현황 이해하기 안전장비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알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처치의 상황, 의미, 중요성, 신고 조치 방법 알리기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법 알리기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하기 일상생활 속 응급처치 알리기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식품의 특성 이해 및 전기, 전자제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 알리기 실질 학습 안전 수칙 이해 및 보호장구의 바른 사용법 알리기 체육 및 야기활동의 안전한 활동 상에서 대처방법 알리기 실종, 유괴, 미야상황 알고 예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륜차의 안전한 이용과 경정방법 알리기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법 알리기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 알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의 유형과 현황 및 위험성 인식하기 학교폭력 유형별 신고, 대처방법 알리기 성폭력 예방과 신고, 대처방법 알리기 성매매의 위험성과 구조 및 신고방법 알리기 자살과 타인(가족 포함)의 소중함 인식하기 가정폭력 예방 지침을 알고, 보호하기(아동학대 포함)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 피해 알리기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 피해 알리기 인터넷 게임 사용 규칙 만들기 및 실천 스마트폰의 안전한 사용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의 원인 및 대피, 대응요령, 신고, 진화요령 알리기 화상 대처 요령 알리기 각종 자연 재난과 안전행동 알리기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험 유형별 대 처 요령 알리기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법의 권, 예방 및 대처 방법 알리기 직업법의 안전수칙 및 보호 장비 알리기 산업 재해의 의미, 유형과 사별 발생 현황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처치의 상황, 의미, 중요성, 신고 조치 방법 알리기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법 알리기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하기 일상생활 속 응급처치 알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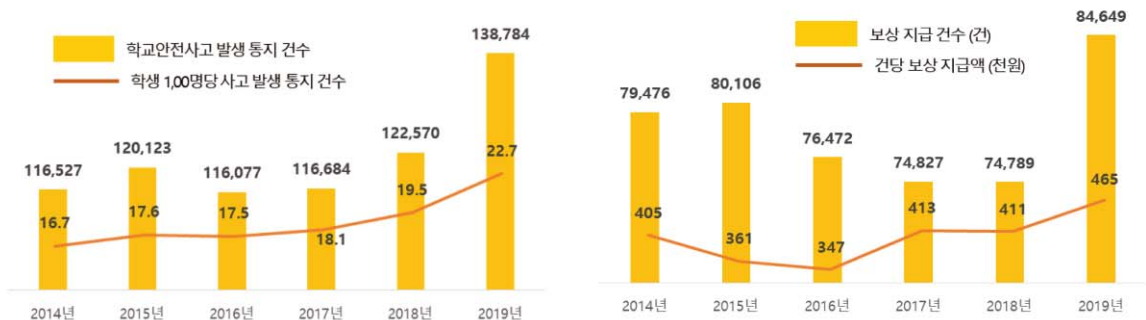
6

II. 학교안전교육의 문제점

학교안전사고의 지속적 증가

2014년 이후, 학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당국의 부단한 정책적, 교육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학교안전사고 발생) 최근 6년간('14~'19)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연평균 3.6%씩 증가하였고, 학생 1,000명당 발생 건수는 매년 6.3%씩 증가
- (학교안전사고 보상) 최근 6년간('14~'19) 학교안전사고 보상 건수는 연평균 1.3%씩 감소하였으나, 사고 1건당 보상지급액은 매년 2.8%씩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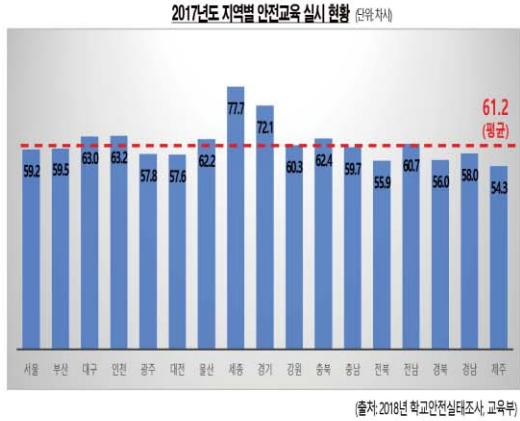
7

II. 학교안전교육의 문제점

학교안전교육의 量 ↑, 質 ?

학교현장은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라 매년 51차시의 학생안전교육 실시해야 하는 반면, 이에 필요한 교육시간 확보의 어려움에 직면함.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위해 조·종례시간 5분 안전교육, 창체시간 활용, 교과수업시간 연계 등을 통해 평균 61차시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보고함. 그러나 이러한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의 지속적 증가 현상은 학생안전교육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줌.

※ 범교과학습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인해 실제로 창체시간을 활용한 안전교육 실시가 어려운 상황이며, 교과목 연계 역시 성취기준과 안전학습요소간의 연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형식적인 안전교육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



1.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연계표(국어)

성취기준과 안전학습 요소간 연계의 어려움

관련교과	상위기준	안전 학습 요소	7대 표준안		자료분류명	시수	
			대분류	소분류			세부내용
고등학교 국어 (공통)	[10-국1-01]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듣기와 말하는 방법이 다양함을 이해하고 듣기-말하기 활동을 한다.						
	[10-국1-02]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한다.						
	[10-국1-03] 논제에 따라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에 참여한다.	원조교과와 성격 의사결정권	폭력 및 신변안전	심리통제법	성인권 이해하기	[고-공-국-폭] 학교폭력	1
	[10-국1-04] 협상에서 서로 만족할 만한 대안을 탐색하여 의사 결정을 한다.						
	[10-국1-05]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듣고 말한다.	지진 발생 시 대피요령 모의하기	재난안전	지진대신원바나비 발생 시 대피요령	자연재난 유형별 발생 원인 및 특징	[고-공-국-재] 사회재난	1
	[10-국1-06]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성찰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이해	폭력 및 신변안전	언어/사이버 폭력	언어/사이버 폭력의 유형 및 사례	[고-공-국-폭] 학교폭력	1
[10-국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10-국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읽는다.	인터넷 개인중독의 위험성 관련 글 평가하여 읽기	약물 및 사이버안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중독의 개념 및 특성	[고-공-국-폭] 사이버중독	1	

II. 학교안전교육의 문제점

안전교육(safety education)의 한계

학생안전교육은 학생의 위험감수성(risk awareness)과 위험통제(risk control) 역량개발을 목적으로 실시되지만, 현행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기반한 안전교육(safety education)은 특정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행동수칙의 학습과 습관화를 목적으로 함에 따라 학생의 실제적인 리스크 리터러시(risk literacy) 향상을 위한 교육적 효과가 제한됨.

※ 위험감수성(risk awareness)은 학생 스스로 자신과 주변에 존재(잠재)하는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이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 위험통제(risk control)는 인지된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 리스크 리터러시(risk literacy)는 위험을 읽고, 쓰고,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위험역량(risk competency)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함.



출처: 연합뉴스(해양경찰청 제공 사진), 2014. 04. 25

II. 학교안전교육의 문제점

학생안전 위협요인의 복합화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지역적·세계적 기술, 경제, 사회, 정치, 문화, 교육의 복합적 분열로 현행 교육시스템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의 학교 폐쇄는 교육활동 중 사고인 학교안전사고를 감소시켰으나 신체·정신 건강, 범죄와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신변안전, 학생의 웰빙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함

복합적 분열	교육시스템에 대한 도전
기술적	온라인 학습, 학습 방식, 공정, 평등의 변화를 가져온 기술적 격차
경제적	학교수업 재개에 필요한 결정적 자원의 부족 (예 : 마스크, 소독제, 신규시설 등)
사회적	모임, 사람 간 접촉을 막고, 학교의 사회적 풍토와 질(質)을 손상시키는 사회적거리두기와 격리
정치적	교육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 지역적 정치 갈등 유발과 팬데믹의 정치화
문화적	교육시스템에서의 공동의 이해와 노력을 저해하는 팬데믹에 대한 문화적으로 다양한 반응
학습적	휴교와 학습방식의 변화로 인한 학습격차와 심리적 장벽들

출처: The Futures of Education after COVID-19, UNESCO, 2020 (Cheng, Y.(2020). Multiple disruption and lesson 재인용)

- 팬데믹으로 인한 **학교 폐쇄**는 학생들에게 **불안감과 그 밖의 정신건강 이슈의 증가와 악화**를 가져다 주었다. (School exclusion risks after COVID-19,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University of Oxford, 2020. 6)
- 아동학대 가해자 77% 부모, 학대 대부분 자택서 이뤄져, 교직원·지자체·의료기관 등 '외부신고자'의 역할이 중요, **코로나19 이후 교직원 학대 의심 신고 전년 대비 73% 감소**. (아시아경제, 코로나에 갇힌 아이들, 가정내 학대 못 찾는다. 2020.6.18)
- 대한의사협회는 온라인 개학으로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모니터 화면의 장시간 응시에 따른 눈의 피로와 충혈, 자극 민감성, 눈의 통증, 등 굽음, 두통**을 유발하는 안구건조증과 거북목증후군에 대한 주의를 역설했다. (온라인 수업 시대, '거북목'보다 무서운 안구건조증, 헬스조선, 2020.4.17)
-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학생들의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교육도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A중학교 교감은 "학생들의 사이버 학교 폭력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며 "온라인 수업의 비중이 더욱 커져가는 만큼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도 강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학교폭력에 명드는 청소년, 대전일보, 20.8.4)
-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배고픔을 겪는 '결식아동'이 있다. 취약계층에 도시락을 전달하는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33만 명이 넘는 아이가 지자체의 급식예산을 받아야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에 밥 굶는 아이들 없도록...' 기업과 지자체 손잡았다. 동아일보, 2020.8.27)

10

III. 학교안전교육 개선 방안

안전 · 보건 · 웰빙 통합 학교안전교육 실시

안전·보건·웰빙을 통합(연계)한 학교안전교육 실시와 더불어 현행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중심의 안전교육(safety education)을 참여 중심의 위험교육(risk education)으로 확대한 학교안전교육 체계와 방법의 개선을 추진

※ 위험교육(risk education) : 배우거나 경험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이로 인한 위험성의 제거(또는 경감)를 위한 올바른 의 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을 말함.

Model of a whole School Approach to OSH



출처: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education: a whole school approach (EU-OSHA,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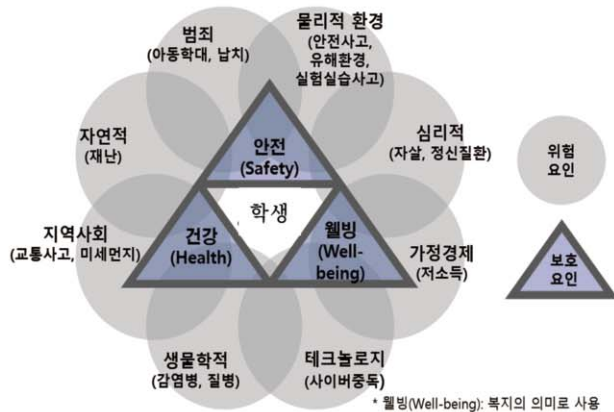
11

Ⅲ. 학교안전교육 개선 방안

안전·보건·웰빙 통합 학교안전교육 실시

학생의 안전·건강·웰빙을 통합한 학교안전교육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 (SDG3),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SDG4),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SDG9), ‘인권·정의·평화’ (SDG16) 달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함.

안전·건강·웰빙 통합 학교안전교육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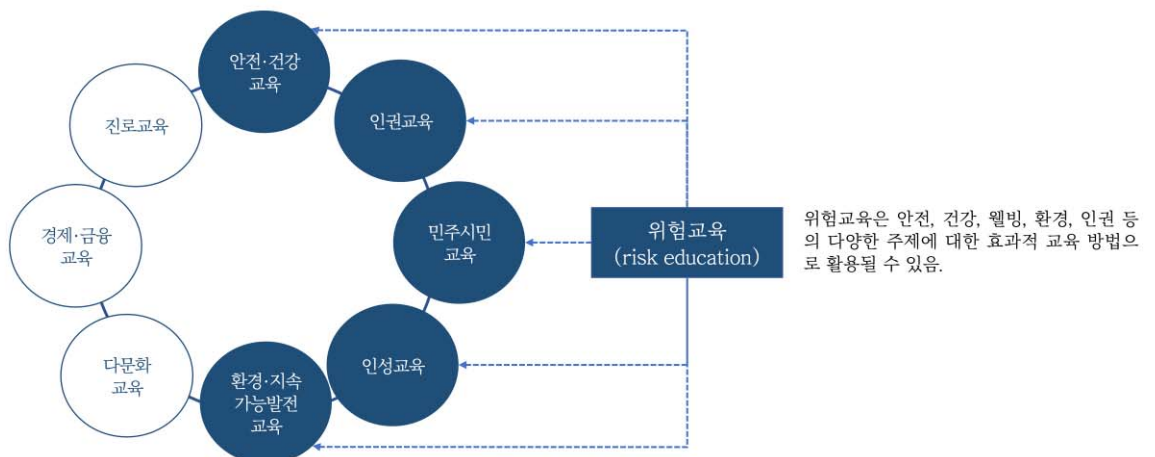
9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9.1 ...경제발전과 인류의 웰빙을 지원하기 위해...)

16 인권·정의·평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Ⅳ. 결론 및 제언

통합 학교안전교육을 위한 관련 범교과 연계(통합)

안전·보건·웰빙 통합 학교안전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일반교과보다 관련성이 큰 범교과 학습주제와의 통합(연계) 교육이 요구됨. 또한 이러한 통합 학교안전교육은 위험감수성(risk awareness)과 위험통제(risk control) 역량 개발을 위한 학생 참여 중심의 위험교육(risk education)에 기반할 것을 제안함.



위험교육은 안전, 건강, 웰빙, 환경, 인권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효과적 교육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

발제3

학교 평화 · 통일교육 현황 및 과제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임정진 연구사

학교 평화·통일교육 현황과 과제

2020년 11월 23일

임정진(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통일부 통일교육원 제공

CONTENTS

- 1 학교 평화 · 통일교육 현황
- 2 학교 평화 · 통일교육 방향과 과제

학생들의 통일 인식 (언론)

“남처럼 살았는데 굳이?”... 통일 개념 희박해진 Z세대

3 15

입력 2020.01.03 13:57 | 수정 2020.01.03 17:03 | 5면 0단

[Z세대, 넌 누구니?] 통일 · 민족에 거리 두는 세대
한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나? “그렇지 않다” X세대보다 높은 33.6%



통일교육 실태조사(통일부,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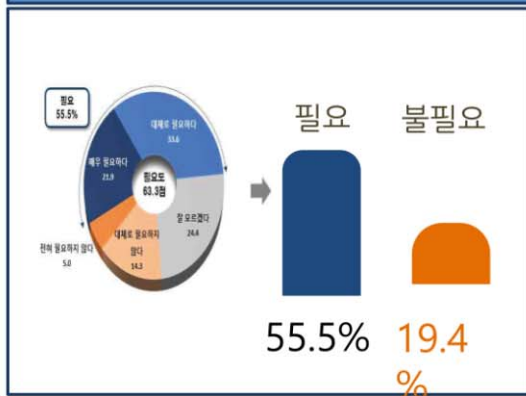
2019년 조사 개요

- 초·중·고 통일교육 실태 조사(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 '14년부터 실시, 교육부·교육청 협조)
 - (대상) 초중고 598개교 69,859명(학생 66,042명, 교사 3,817명)
 - 학생 : 초 19,679명(5·6학년), 중 23,094명, 고 23,269명(95%신뢰수준±0.38%p)
 - 교사 : 초등 담임, 중등 사회·도덕·역사 교사 등(95%신뢰수준±1.58%p)
 - (시기·방법) '19.10.21~11.29, 우편 및 방문 조사(통일·북한 인식 등 20개 문항)
- 대학교 실태조사(통일부)
 - 전국 4년제 대학생 1,500명(일반대)

✓ 그 밖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통일연구원 등

학생 통일 인식 저하, 무관심

통일은 필요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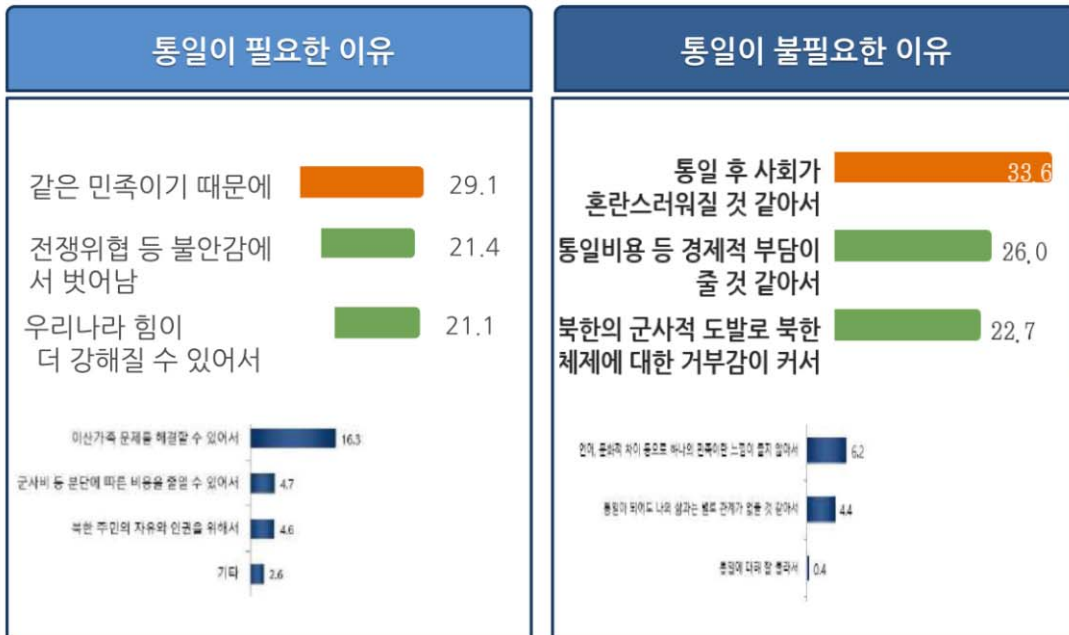


학교 급 별 통일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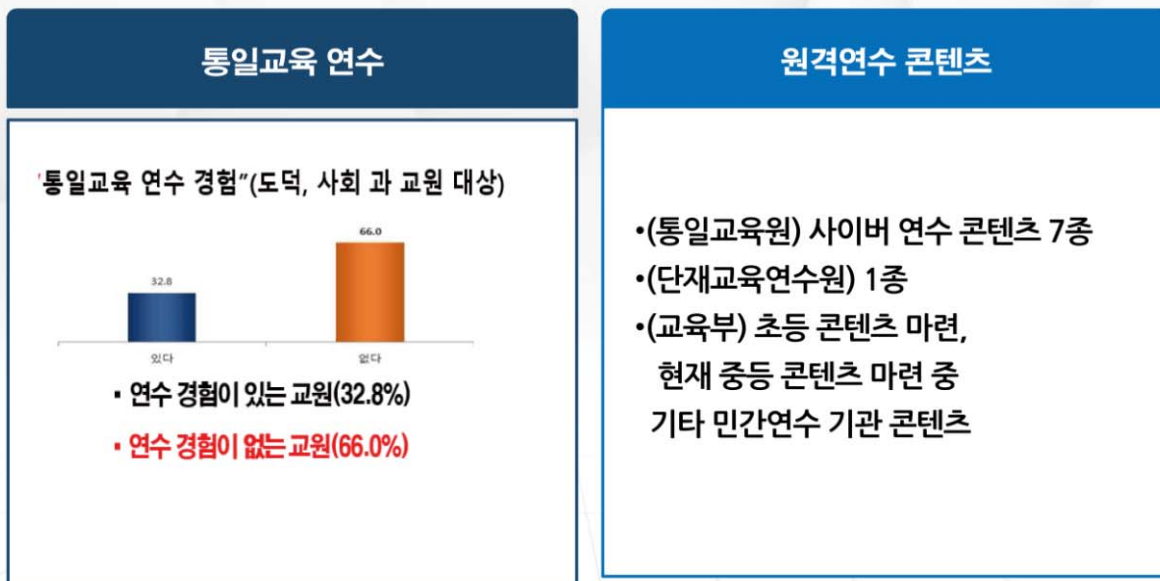
- ✓ 초 68.5%
- ✓ 중 52.6%
- ✓ 고 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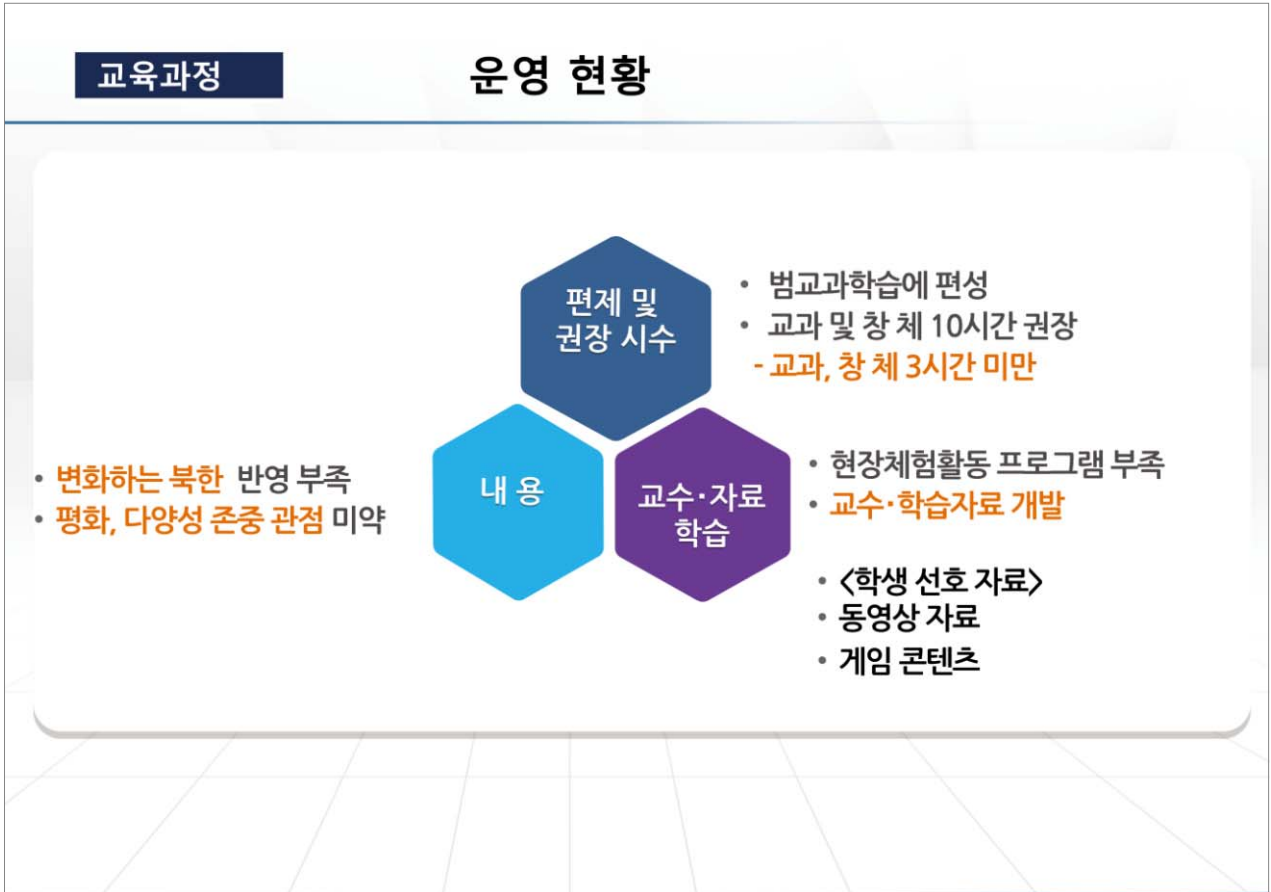
학령이 높아질수록
통일 필요성 인식 저하 및 정체

학생 통일은 필요한가요? 불필요 한가요?



교원 전문성을 키우는 연수 경험





성취기준(예- 도덕 교과)

• 초 [4도 03-03]
남북분단과정과 민족의 아픔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통일 의지를 기른다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은 무엇이며 통일을 위해 어떻게 하면 나라사랑을 위한 실천 의지를 기를 수 있을까?

• 중 [9도 03-06]
북한과 북한주민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북한에 대한 관점을 기를 수 있다.

• 고 [생윤12 06-02]
통일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을 설명할 수 있으며, 남북한의 화해를 위한 개인적, 국가적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교육과정 **범교과학습주제(통일교육)**

<p>총론 II.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p>	<p>총론 해설</p>
<p>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통합적으로 다루고, 지역사회와 가정과 연계</p> <p>안전·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p>	<p>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통일이 왜 필요한지 학습하게 하고, 범교과적으로 국가 상징, 한국 문화사 교육, 호국 보훈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국가정체성을 명확히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p>

학교 평화·통일교육 추진 계획(안)

비전, 목표 및 방향

비전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목표	미래세대 평화역량 함양과 통일공감대 형성	
방향	지식전달 중심에서	학습자 활동 중심으로
	당위적 담론중심에서	일상의 삶으로
	중앙 중심에서	협업·지원으로

※ 평화·통일교육 관점과 방향(통일부, '18. 7.)
 ※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교육부, '18.11.)

주요 변화

그 간	앞 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방적, 지식 전달식 중심 • 안보 중심 통일교육 • 거대담론 중심 • 평화·통일교육 거버넌스 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향, 체험, 참여 중심 • 평화적 실천 과정의 통일교육 • 구체적 삶, 일상에 스며드는 교육 • 통일부·시도교육청·민간과 거버넌스 구축

교육과정에서 평화·통일교육 강화

다양한 교과에서 평화·통일수업

- 도덕, 사회, 역사, 국어 토대로
- 다양한 교과에서 수업 확대
- 교과 융합 수업, 프로젝트 수업

교육과정 연구

- 평화, 공존, 번영의 관점으로 보완·강화
- 교과서 서술 현황 파악 및 보완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등
- 교과, 주제 탐구, 평화 감수성 자료 개발

통일교육 포털 개편·운영

통통평화학교(tongil.moe.go.kr) 개편 운영

교원 역량 강화

교원 연수

- 핵심교원양성(질적 연수)
- 사전 워크숍 → 집중 연수 → 지역별 현장 체험 연수
- 시도별 현장맞춤형 연수 지원

연구활동 지원

- 교사학습공동체, 연구회 등 지원
- 사례 나눔 한마당 등 성과 공유

연수 지원

- 교사대 교육과정 교과목 편성 권장
- 자격연수과정에 평화·통일교육 과목 개설

해외 교원 교류

- 한국 독일 교원 교류
(과거사, 난민, 통일 사례, 미디어교육 등)
- 북아일랜드, 일본, 베트남 교원 교류
(상호이해교육, 문화다양성교육 등)

평화의 방벽을 세우는 역사교육('18년 교수학습자료)

1. 여는 글 - 6.25전쟁(한국전쟁)을 가르치려는 교사들에게 6	
전쟁으로 평화를 기르실 수 있을까?	
2. 교육과정 분석 - 역사과 교육과정 속의 6.25전쟁(한국전쟁) 23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3. 국가 - 전쟁은 왜 일어났고, 어떻게 끝났는가 27	
냉전 속 열전, 6.25 전쟁(한국전쟁)	
4. 마을 - 마을이 겪은 전쟁 42	
수복지구 철원, 분단선 위를 살아간다	
5. 개인 - 전쟁이 달친 개인의 삶 64	
전쟁타가 되어버린 포로수용소	
6. 문화 - 영화 속에 비친 6.25전쟁(한국전쟁) 91	
스크린 속 6.25전쟁(한국전쟁), 평화의 연으로 다시 보기	
7. 수업활동 - 평화 감수성과 평화능력 기르기 115	
평화를 실천하는, PEACE BUILDER 세우기	
8. 수업 활용 도구	
PPT 자료 1(수복지구 철원, 분단선 위를 살아간다) 123	
PPT 자료 2(학도병,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128	

평화감수성과 평화 능력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전쟁이 인간의 마음과 행위에서 시작되었다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것도 바로 인간의 마음과 행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등한 교육과 사상의 자유, 충분한 소통과 정보가 필요하다.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살갓으로 느껴야 하는 것이 우리이지만, 전쟁을 시작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우리 라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넓고 직접적인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평화는 천국을 꿈꾸는 일이 아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의 비 평화를 발견하는 것,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갈등을 직면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평화의 시작이다.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교실 안 친구들이 평등하게 둘러 앉은 것부터 평화 능력이 시작될 것이다.

유네스코 헌장 전문(1946.11.4.)

Constitution of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 일부 발췌 -

통일교육에서 평화의 확장

- (프로그램) 평화·통일교육, 배움과 나눔
 (대상) 전국 교원 425명
 (구성) 특강, 수업 사례, 평화교육 사례 등
 (주요 프로그램)
- ① 통일에 무관심한 청소년과 소통 방법
 - ② 6.25전쟁과 동아시아 평화의 길
 - ③ 글로벌 시민성을 키우는 평화·통일교육
 - ④ 평화·통일 보이텔스 바흐 수업 사례
 - ⑤ 평화·통일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사례

배움과 나눔 2020년 평화·통일교육 온라인 권역형 워크숍

대상 전국 초·중등교원 425명
 (시도교육청별 25명 신청 가능)
방법 온라인 생중계 (YouTube)

 9월 3일(목) 국립평화에 대한 한반도 통일대교원실장	 9월 10일(목) 6.25전쟁(한국전쟁)과 동아시아 평화의 길
 9월 17일(목) 통일에 무관심한 청소년, 어떻게 소통할까	 9월 24일(목) 전한규 기자와 우리는 평화·통일이란 무엇인가

9월 3일(목) | 서울 대전 강원 제주

15:00-16:20 특강
국립평화에 대한 한반도 통일대교원실장 김준형(국립외국어원 원장)
 16:20-17:00 수업 사례
 1. 1.1 김동준(서울시립대학교) 평화 통일교육 - 전쟁(대안(가)비교)
 2. 2.1 박정호(서울대학교) 평화 통일교육 - 이해(대안(가)비교)
 17:00-17:30 평화교육 사례(대전(대전대교원실장))
 (신청기간) 8.14(금)~8.26(수)

9월 10일(목) | 대구 광주 경기 충남

15:00-15:30 평화교육 사례(한국평화교육연구원)
 15:30-16:10 수업 사례
 1. 1.1 이다영(서울 평화통일교육 - 김지영(경기 배교))
 2. 2.1 홍기어(충청남도 평화통일교육 - 김지영(경기 배교))
 16:10-17:30 특강
국립평화에 대한 한반도 통일대교원실장 김동준(서울대학교 교수)
 (신청기간) 8.14(금)~8.26(수)

9월 17일(목) | 부산 충북 전남 경북

15:00-16:20 특강
통일에 무관심한 청소년, 어떻게 소통할까 문아영(부산대 대표)
 16:20-17:00 수업 사례
 1. 1.1 조희준(충청북도 평화 통일교육 - 김지영(경기 배교))
 2. 2.1 Peace4Peace로 시작하는 평화 통일교육 - 이희준(충청북도 대표)
 17:00-17:30 평화교육 사례(한국평화교육연구원)
 (신청기간) 8.14(금)~8.4(금)

9월 24일(목) | 인천 울산 세종 전북 경남

15:00-16:20 특강
전한규 기자와 우리는 평화·통일이란 무엇인가 전한규(평화통일TV 대표)
평화의 최후의 날에 관하여
 16:20-17:00 수업 사례
 1. 1.1 김민(충청북도 평화 통일교육 - 김지영(경기 배교))
 2. 2.1 평화 통일교육 사례 - 김민(충청북도 대표)
 17:00-17:30 평화교육 사례(대전(대전대교원실장))
 (신청기간) 8.14(금)~8.4(금)

- 신청방법** 1 **공문신청** 소속 지역 시도교육청으로 신청 공문 제출
 (개인, 단체, 학교 단위 신청 가능)
 2 **포탈신청** 통일평화학교(<http://tongil.moe.go.kr>) 공지사항 신청 안내 참고
 - 본인 소속 관역 이외의 워크숍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통일평화학교에서 신청함
- 문의처**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043-530-9138)

통일교육에서 평화의 확장

- (프로그램) 평화로 일구는 성장
 (대상) 시도별 핵심 교원 80명
 (구성) 배움, 연구, 사례 발표

- ① 한국전쟁을 평화로 재구성하려면
- ② 생태, 안보, 평화(뉴 노멀 시대의 평화)
- ③ 탈 분단과 페미니즘 평화교육

평화로 일구는 성장 2020년 평화·통일교육 주제탐구형 워크숍

 백대근 서울대학교 10월 8일(목) 6.25전쟁(한국전쟁), 평화를 위한 재건	 이대훈 상명대학교 10월 15일(목) 뉴노멀 시대의 평화	 김영리 영지대학교 10월 22일(목) 평화와 페미니즘 관련으로 본 분단된 마음
---	--	---

- 대상** 평화·통일교육연구회, 교사학습공동체 등 평화·통일교육 연구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교사
 시도교육청별 5명 선정(전국 85명 대상)
방법 온라인 운영
내용 **[배움]** 6.25전쟁(한국전쟁), 젠더, 뉴노멀의 관점에서 평화 바라보기
[연구] 시도교육청별 '평화' 관련 연구주제를 설정하여 평화 탐구하기

차수	날짜	주제	특강	프로그램	신청기간
1차	10월 8일(목)	15:00-17:00	특강	6.25전쟁(한국전쟁), 평화를 위한 재건 - 백대근(서울대학교)	8.14(금)~9.4(금)
		17:00-17:30	주제 토의(지역)	평화교육 관련 주제 탐구	
2차	10월 15일(목)	15:00-17:00	특강	뉴노멀 시대의 평화 - 이대훈(상명대학교)	
		17:00-17:30	주제 토의(지역)	평화교육 관련 주제 탐구	
3차	10월 22일(목)	15:00-17:00	특강	평화와 페미니즘 관련으로 본 분단된 마음 - 김영리(영지대학교)	
		17:00-17:30	주제 토의(지역)	평화교육 관련 주제 탐구	
4차	11월 12일(목)	15:00-17:30	워크숍 발표* 및 종합행위		

* <이그나잇 발표> 한 주제에 대해 슬라이드를 남기며 5분 안에 이야기하는 발표 방식
 ** 4차 <이그나잇 발표 및 종합행위>는 주제별 4개 지역별로 구성되어 구성하여 연구자 연차와 함께 진행함(온라인 플랫폼 오픈활동 가능 포함)

- 신청방법** 공문신청 소속 지역 시도교육청으로 신청 공문 제출
문의처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043-530-9138)

앞으로의 과제

(용어) 통일교육 → 평화·통일교육

(범교과학습주제 해설)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제시 및 내용 보완

(평화·통일교육과 안보) 인간안보(Human Security)와 함께 포괄적 방향 — 생태 전환, 분단 폭력 및 여러 폭력에 대한 안전, 배타, 배제, 혐오에 따른 인권 감수성 확보 등

(온라인 플랫폼) 교수학습자료, 교원연수 등 학교 평화·통일 교육 지원을 위한 플랫폼 '통통평화학교' 개편

학교 평화·통일교육
현황과 과제

감사합니다

발제4

민주시민교육 현황 및 미래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

이쌍철 본부장



I. 학교 민주시민교육 현황

1. 학교 민주시민교육 개념

● 일반적 개념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 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활동(교육)

구분	도덕적 모델 (Moral conceptions)	권리 모델 (Legal conceptions)	참여 모델 (Participatory conceptions)
내용	정치 공동체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덕적 덕목을 강조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강조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 참여를 강조
주요 가치	준법, 협력, 정체성, 다양성 존중, 책임, 소속감 등	자유(표현, 생각, 신념), 참정권, 인권(교육, 건강, 주거 등) 등	비판적 사고, 시민사회 참여, 연대 등

출처: Kiwan(2008: 41-45) 재구성 및 수정 보완

2. 학교 민주시민교육 교육 체제: 교육과정

● 교육기본법 제 2조(교육이념), 교육과정 총론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과정 내 민주시민교육

범교과학습주제

도덕과

사회과

학생자치활동

3. 학교 민주시민교육 체제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신설: 2018년**
-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업무 전담 부서 신설(서울, 충북 등)**
- **학교 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 제정: 13개 시·도교육청**

지역	제정(개정)일	지역	제정(개정)일
강원도교육청	2019. 03. 08.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 09. 23.
경기도교육청	2020. 05. 19.	전라남도교육청	2020. 07. 02.
경북교육청	2019. 07. 11.	전라북도교육청	2019. 12. 06.
광주광역시교육청	2018. 03. 01.	제주교육청	2019. 10. 10.
부산광역시교육청	2019. 04. 17.	충청남도교육청	2017. 10. 10.
세종교육청	2019. 11. 11.	충청북도교육청	2016. 05. 20.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07. 16.		

4. 학교 민주시민교육 정책 내용(예시)

● 범교과 학습주제로 민주시민교육

<p>서울형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반 확대</p>	<p>서울형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책 연구 수행 민주시민교육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학교민주시민교육 발전을 위한 포럼 개최 사회현안교육 원칙 수립을 위한 교원 토론회 추진</p>
<p>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전문성 신장 지원</p>	<p>민주시민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파일럿 연수 운영 사회현안 프로젝트 학습 실천교원단 운영 교원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학교 안·밖 네트워크 구성</p>
<p>학교교육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p>	<p>교과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실천 지원 민주시민교육 자료 개발·보급 서울학생 사회참여 한마당 내실화 민관협력을 통한 찾아가는 법교육 확대</p>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2020).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계획

● 학생자치활동

중점 추진 과제	1 학생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	<p>가. 교육과정 내 학급자치 시간 확보</p> <p>나. 학생자치 전담교사 지정</p> <p>다. 학생회실 구축·운영 지원(공간 민주주의 실현)</p>
	2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	<p>가. 학생참여 선순환 체계 구축·운영</p> <p>나. 학교 공동의 의사결정과정 학생 참여 보장</p> <p>다. 학생참여위원회(학생회 네트워크) 역할 제고</p>
	3 학생자치 실행 역량 강화	<p>가. 민주적 효능감 신장을 위한 '학생자율예산' 지원</p> <p>나. 학급임원(대의원회) 대상 학생자치역량 강화 교육 지원</p> <p>다. '학생자치 나눔 컨설팅단' 구성 및 합동 컨설팅 실시</p> <p>라. 학생자치 지도역량 강화 연수 운영 및 우수사례 공유</p>
	4 학생자치문화 확산	<p>가. 교육과정 연계 학생자치 문화 확산</p> <p>나. 공경하고 민주적인 학생회장단 선거문화 정착</p> <p>다. 사회현안 및 지역사회 연계 학생자치활동 실천 체계 구축</p>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2020).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 계획

5. 범교과 학습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 실천 사례(예시)



학기	학년	교과통합 프로젝트 수업 주제	참여 교과
1	1	소중한 물, 행복한 미래	과,사,국,영,미
	2	희망 스토리 UCC	과,도,미,음,정보
	3	물사랑 플래시몹	수,국,음,미,체
2	1	경서, 기억을 품다!	과,국,수,영,기가
	2	발간! 웹 매거진 우리고장 '옥포의 모든 것'	국,영,기가,음,미
	3	착한 홍보! 내가 보여주고 싶은 옥포!	과,국,영,음,기가,진로
1	1	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다!	수,국,과,영,미,기가
	2	환경보호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다!	역,과,도,국,음,가정
	3	우리는 환경지킴이	사,과,수,영,국,미,음
2	1	가면 포크댄스	사,체,음,수,국,기가
	2	무도회로의 복고댄스	도,체,음,수,국,과,가정
	3	초대! 입합댄스	역,도,음,체,미,국,영
1	1	나누기로 두배 되는 미소	국,수,과,영,도,체
	2	메모로(Memoro)! 기록문화유산 만들기	역,가정,국,정보,영,수
	3	우리고장의 지역화 전략은?	사,영,국,정보,체,음
2	1	경서, 기억을 품다 2017!	수,과,사,영,국,정보
	2	사춘기, 우리들의 성장영화!	기가,국,음,도,한문
	3	어제, 오늘, 내일 "나의 가족"	국,과,가정,영,음,미
1	1	K-Memoro "숨은 영웅 찾기!"	과,수,도,체,국,사,정보
	2	K-Change "떠나라, 수학여행!"	국,영,가정,수,영
	3	K-Mission "위기의 지구를 구하라!"	과,영,국,미,수,음
2	1	k-culture, Shall We Musical	국,정보,과,수,체,도
	2	k-culture, 제2회 옥포영화제!	역,정보,과,국,영
	3	k-culture, 옥포소년단의 "Love yourself"	과,영,국,음,수,미,사

- 교육과정 통합
- 프로젝트 학습
- 문제해결 학습

6. 범교과 학습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 실천 사례

● 위기의 지구를 구하라: 문제의식

농사를 짓는 가정이 많은 우리학교에서 기후변화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 우리 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지구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생활 태도를 바꾸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 위한 프로젝트 수업 설계

과학	국어	미술
		
전기 사용량 체크리스트 제작	에너지 절약 실천 성찰 글쓰기	eco-house 제작 및 공유
수학	음악	학생 소감
		부모님의 일과 기후변화의 관계, 솔직히 무서웠다. 작은 노력으로도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노력해야겠다.
나의 텃밭 만들기 활동지	에너지 절약 캠페인송	

7. 실천의 어려움

목표, 내용, 범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

교육과정 및 정책의
분절적 접근

교실 수업과
사회적 이슈와의 분리

지원 자료 부족
사회기관과의 연계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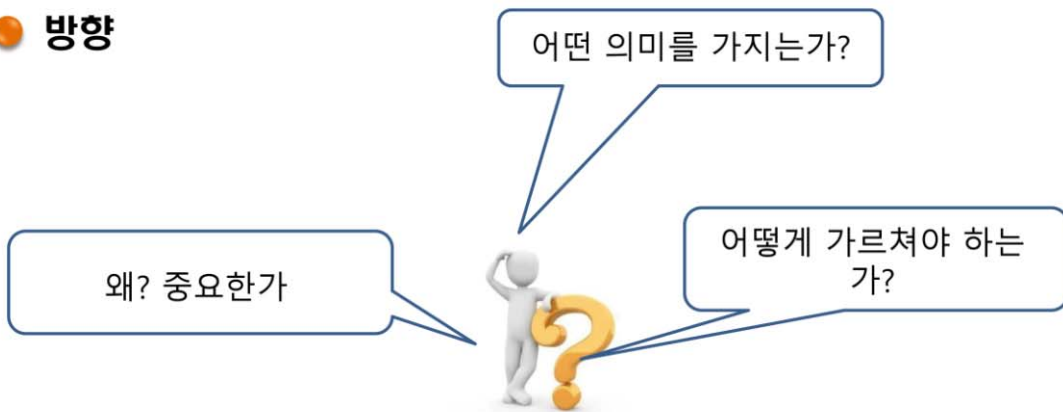
**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범교과
통합적 교육을 위한 제언**

1. “범교과 학습” 의 의미, 가치, 내용, 방법 등 명료화

● 범교과 학습 주제의 의미 공유 부재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교육과정 총론)

● 방향



→ 교육 목적,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에 있어, 범교과 학습주제의 가치,의미 명료화

2. 범교과 학습 주제의 통합화

● 현재



● 방향



2. 범교과 학습 주제의 통합

-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주요 주제로 다루어질 수 있음



3. 단위 학교(교사)의 주제(교육 내용) 선정 자율성 확대

- 다양한 주제 중 학교(교사)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제 선정
- 주제 선정에 대한 규정 보다, 시간 또는 통합(프로젝트) 학습 활동에 대한 규정 제시

예) 범교과 학습 주제로 1학기 1개 주제 이상 프로젝트 학습 진행

4. 시민사회 단체/유관 부처와의 협업 및 자료 보급



발제5

학교 환경교육 현황 및 미래과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청주교육대학교

이선경 교수

학교 환경교육의 현황 및 미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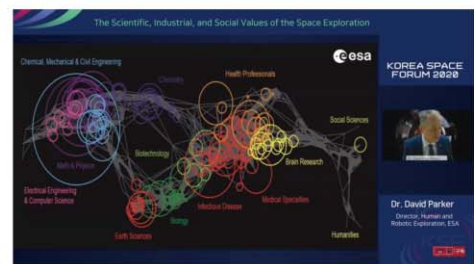
-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2020.11.07

이선경
청주교육대학교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한국위원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범교과 통합(연계)교육 활성화 포럼 (제4차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포럼/제16차 유네스코 ESD 콜로키움) 2020.11.1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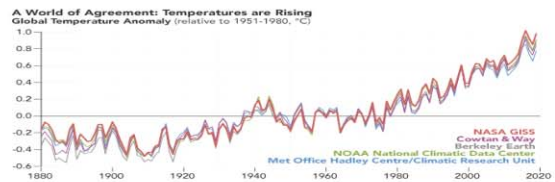
이제는 우주 기술도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해야 ... (코리아 스페이스 포럼, 2020)



<https://www.youtube.com/watch?v=fdF4FSRZDDY>

복잡한 쟁점, 난해한 문제, 현명한 의사결정

- 기후변화, COVID19 등 -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들
 실제 세계 쟁점의 복잡성과 연계성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 전략 필요
 - > 환경적 · 경제적 · 사회적 측면의 연계와 통합적 이해 필요
 - > 개인적 · 지역적 · 지구적 차원의 연계와 통합적 이해 필요
 - > 비판적 사고와 시스템 사고 등의 역량 증진 필요
 - >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사회와 미래 만드는 교육 필수 (UNESCO, 2005)



<https://earthobservatory.nasa.gov/world-of-change/global-temperatures>

기후위기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정도의 변화를 각오해야 한다.에너지 체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고 땅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 짐 스키어 교수 (IPCC 공동의장)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ESD for 2030 Roadmap (UNESCO, 2020)

- 비전
지속가능발전교육 강화 및 17 SDGs 에의 기여를 통해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계 구축
- 핵심 특징
 1. 17 SDGs를 위한 교육의 역할 강조
교육 상황에서 17 SDGs 인식 증진, SDGs에 대한 비판적이고 맥락화된 이해 촉진, SDGs 달성을 위한 실천 증진
 2. 회원국가의 역할 강조
5가지 우선 실천 영역 강조 (정책, 학습 환경, 교육자, 청소년, 지역), 이해관계자 참여시키기, ESD를 위한 지원 증진
 3. 전략적 목표 : 큰 변혁 big transformation 강조
개인의 변혁(individual transformation), 사회의 변혁(societal transformation), 기술적 진보(technological advance) 등



OECD 교육 2030 : 미래, 웰빙, 변혁적 역량, 학생 행위주체성(student agency)



Destination: OECD Well-Being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 Jobs	8. Decent work and economy growth
2. Income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3. Housing	1. No poverty
4. Work-life balance	2. Zero hunger
5. Safety	10. Reduced inequalities
6. Life satisfaction	1. No poverty
7. Health	3. Good health and well-being
8. Civic engagement	3. Good health and well-being
9. Environment	5. Gender equality
	8. Decent work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Related to all goals
	3. Good health and well-being
	5. Gender equality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13. Climate action
	14. Life below water
	15. Life on land
10. Education	3. Good health and well-being
	4. Quality education
	5. Gender equality
11. Community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17. Partnership for the goals

* Source : OECD(2019). OECD Learning Compass 2030 concept note.

2015 개정 국가 교육과정에서의 환경교육 현황 (이선경외, 2020)

• 우리나라에서는

- 초등학교 : 통합적 접근 전략, 즉, 분산 조직, 과학, 사회, 윤리 등의 관련 교과에 범교과 학습주제인 환경교육을 분산 포함.
- 중학교와 고등학교: 제 6차 교육과정부터 『환경』, 『환경 과학』 등 독립선택과목 도입 + 분산 조직, 즉, 절충 방식. 2015 개정 국가교육과정은 모두 『환경』 (남상준, 1995; Lee & Kim, 2017).

- 범교과학습 주제 10가지 중 하나로 포함
안전 · 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 · 금융교육, **환경 ·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육부,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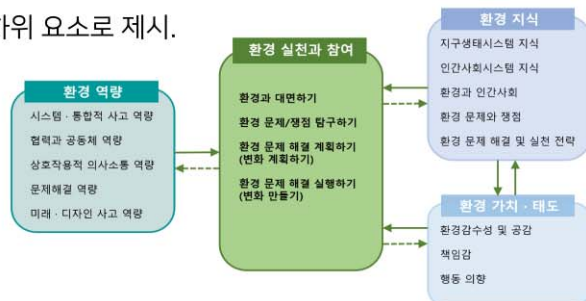
- 『환경』 교과 선택율 낮음
496/5576학교 (8.9%)
중학교 6.0%, 고등학교 12.8% (환경부, 2018).

☞ 학교 환경 교육은

- 통합적 접근 전략(integrated approach)과 독립적 교과 조직 전략(seperate subject approach) 두 가지로 접근 가능 (UNESCO Regional Office in Asia and Oceania, 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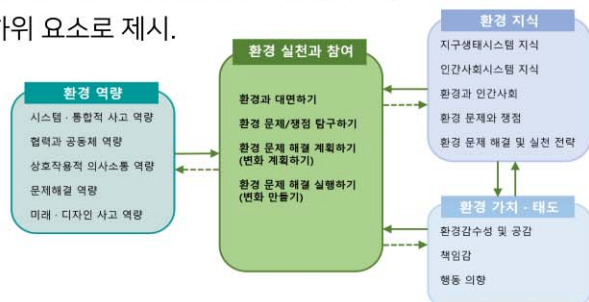
2015 개정 국가 교육과정에서의 환경교육 현황 (이선경외, 2020)

- 2019년 차기 국가교육과정에서의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연구 수행.
 - 여기서 환경교육은 광의의 환경교육, 즉,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 독립선택교과로서의 『환경』은 별도로 논의.
 - DEWHA(2010), Hollweg *et al.* (2011) 등에 기초하여 환경교육 내용 분석을 위한 분석틀 개발하고, 유아교육과정,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과 환경교육 관련 교과내 환경교육 내용 분석.
 - 이 분석틀은 **환경실천과 참여**를 강조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 및 영역, 즉, **환경지식**, **환경태도·가치**, **환경역량** 등을 하위 요소로 제시.



2015 개정 국가 교육과정에서의 환경교육 현황 (이선경외, 2020)

- 2019년 차기 국가교육과정에서의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연구 수행.
 - 여기서 환경교육은 광의의 환경교육, 즉,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 독립선택교과로서의 『환경』은 별도로 논의.
 - DEWHA(2010), Hollweg *et al.* (2011) 등에 기초하여 환경교육 내용 분석을 위한 분석틀 개발하고, 유아교육과정,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과 환경교육 관련 교과내 환경교육 내용 분석.
 - 이 분석틀은 **환경실천과 참여**를 강조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 및 영역, 즉, **환경지식**, **환경태도·가치**, **환경역량** 등을 하위 요소로 제시.



2015 개정 국가 교육과정에서의 환경교육 현황 (이선경외, 2020)

- 각 성취기준별로 환경교육 반영 정도 평가, 0, 1, 2, 3 점 부여

평정점수	평정 기준
3	영역별 성취기준에 환경교육 요소가 단원의 주요 학습 주제 및 내용으로 제시된 경우 (핵심 내용)
2	영역별 성취기준이나 해설에 환경교육 요소가 단원의 주요 학습 주제 및 내용의 일부로 명시된 경우 (주요 내용)
1	성취기준 해설에 언급되었으나 단원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낮은 경우 (연관 내용)
0*	영역별 성취기준이나 해설에 환경교육 관련 요소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 (해당 없음)

*환경교육 내용 요소와의 관련성을 0점으로 평정한 성취기준의 경우, 교과서 개발자 및 교사 수준에서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환경교육 관련 내용 요소를 다룰 수 있음. 그러나 이 연구는 교육과정 개발 단계와 교육과정 문서 차원에서 환경교육 강화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환경교육 내용 요소가 명시적으로 언급된 경우만을 내용 분석에 반영함.

• 평정표 예시

구분	성취기준	환경 지식				환경 태도·가치			환경 역량				환경 실천과 참여						
		지구생태시스템 지식	인간사회시스템 지식	환경과 인간사회	환경 문제와 쟁점	환경 문제 해결 및 실천 전략	환경감수성 및 공감	책임감	행동 의향	시스템 통합적 사고 역량	협력과 공동체 역량	상호작용적 의사소통 역량	문제해결 역량	미래·디자인 사고 역량	환경과 대면하기	환경 문제/쟁점 탐구하기	환경 문제 해결 계획하기	환경 문제 해결 실행하기	
학교	[교육이·유아] 학교 안과 밖, 교실을 둘러보면서 위치와 특징을 모습 등을 알아본다.	1	1																
	[교육이·유아] 여러 친구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친구와 잘 지내는 방법을 알아본다.																		
	[교육이·유아] 나의 몸을 살펴보고 몸의 여러 부분의 역할을 하는 일을 연관짓는다.																		

2015 개정 국가 교육과정에서의 환경교육 현황 (이선경외, 2020)

• 환경교육요소 별 반영비율

$$\text{환경교육 요소별 반영비율} = \frac{\text{각 성취 기준이 해당 요소에서 받은 점수의 합(A)}}{\text{전체 성취기준 수} \times 3(\text{환경교육이 매우 잘 반영된 경우 점수})} \times 100$$

• 영역별 반영 비율: 같은 영역 내 요소별 반영 비율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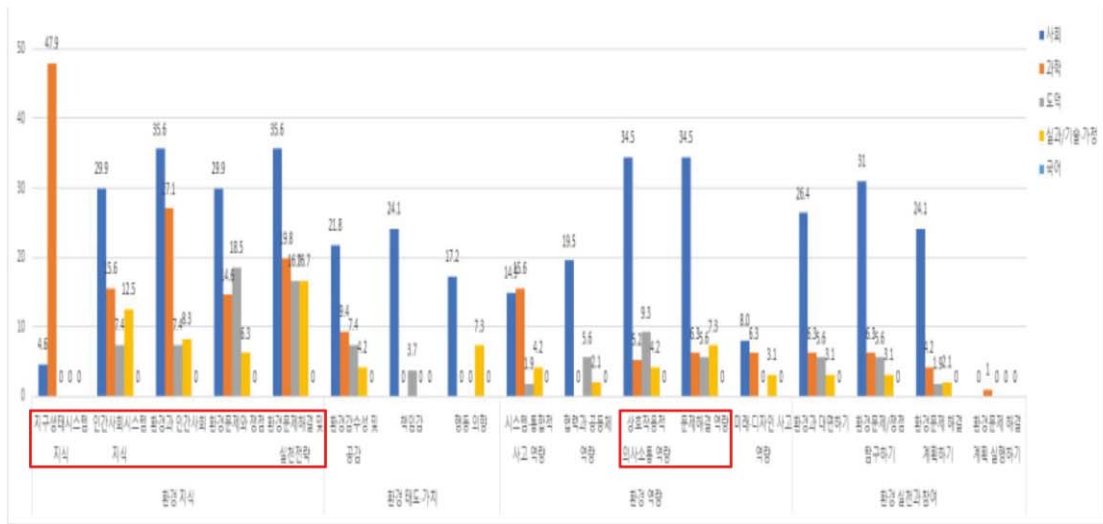
	영역 1				
	요소1	요소2	요소3	요소4	
성취기준 1	0	2	1	3	
성취기준 2	2	2	0	2	
성취기준 3	1	3	2	1	
성취기준 4	0	1	3	2	
성취기준 5	0	0	0	0	
합계(A)	3	8	6	8	
예시> 만점 (5개*3점)	15	15	15	15	
반영비율(A/만점)	20%	53%	40%	53%	42%

요소 1 반영비율: 20%
영역 1 반영비율: 42%

2015 개정 국가 교육과정에서의 환경교육 현황 (이선경외, 2020)

- 2015 개정 국가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환경교육 관련 내용이 특별히 강조되지 않고 있음.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역량 등에서 환경교육과의 연계가능성은 탐색됨.
- 2019 개정 유아교육과정은 상대적으로 확장되고 통합된 시각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 과학, 도덕, 실과/기술·가정, 국어과 교육과정 내 환경교육 내용의 반영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음. 특히 환경지식 이외의 내용은 매우 낮게 반영되어 있었음.
 -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최고값이 사회과의 경우로, 환경지식 범주의 인간사회시스템 지식이 16.7%이었으며, 과학과의 환경지식 범주의 지구생태시스템 지식이 15.3% 었음. 나머지는 이보다 낮게 나타났음.
 - 중학교의 경우에는 최고값은 사회과의 경우로, 환경지식 범주의 환경과 인간사회 지식이 23.4%, 그 다음이 사회과의 인간사회시스템 지식이 21.2% 었음. 나머지는 이보다 낮게 나타났음.
 -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최고값이 과학과의 경우로, 환경지식 범주의 지구생태시스템지식이 47.9%, 사회과의 환경지식이 30% 내외였으며, 나머지는 이보다 낮게 나타났음.
 - 태도·가치, 환경역량, 환경참여와 실천 범주의 반영은 분석된 모든 교과에서 더욱 낮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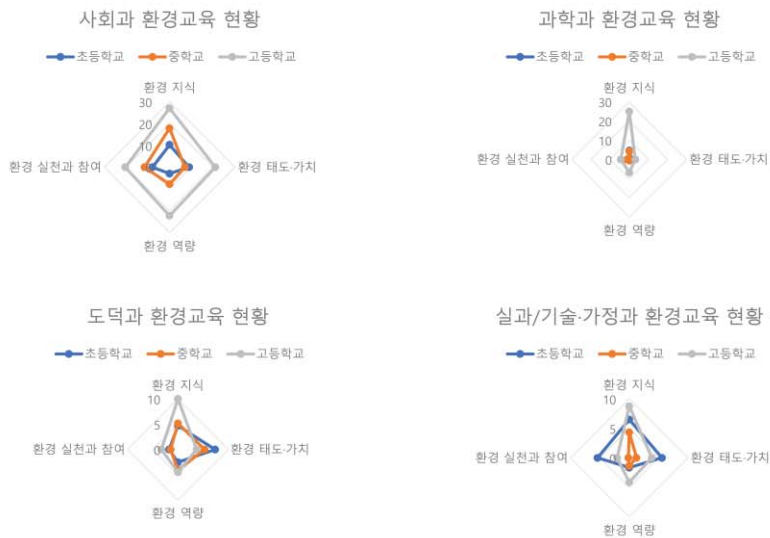
2015 개정 국가 교육과정에서의 환경교육 현황 (이선경외, 2020)



[그림 III-10] 고등학교 통합사회, 통합과학, 생활과 윤리, 기술·가정, 국어과 교육과정 내 환경교육 반영 수준(비율, %)

15

2015 개정 국가 교육과정에서의 환경교육 현황 (이선경외, 2020)



16

2015 개정 국가 교육과정에서의 환경교육 현황 (이선경외, 2020)



차기 국가 교육과정내 환경교육 반영 방안 (이선경외, 2020)

• 초·중·고등학교 국가교육과정 총론

- 추구하는 인간상 :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세계시민'과 '더불어 사는 사람' 강조. 그러나 책임과 존중과 배려의 대상을 지구생태시스템으로 확장하여 명시하지 않음. 차기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에 환경/지구생태시스템의 보호와 존중이 명시되어야 함.
 - ▶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환경 소양을 갖춘 사람**
 - ▶ 삶의 전환을 실천하는 **지구생태시민**(범교육청 정책연구단, 2020 진행중)
- 핵심 역량 : 추구하는 인간상의 개정에 따라 핵심 역량에 '생태(환경) 감수성' 포함
 - ▶ 광주광역시 교육청 - 미래 핵심 역량 세 가지 중 인성 감성 역량에 '생태학적 감수성(환경 의식, 생명존중)' 포함 (광주광역시 교육청, 2019)
- 범교과학습 주제 축소 및 내실화 :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은 핵심적으로 포함.
 - ▶ 호주 교육과정의 범교과학습주제 '지속가능성' (DEHWA, 2010)
 - ▶ 독일 바덴 뷔르템부르크의 범교과학습주제 지속가능발전교육(BNE). 범교과학습의 성취를 교과학습보다 우선 (배지혜, 2020).



차기 국가 교육과정내 환경교육 반영 방안 (이선경외, 2020)

• 초·중·고등학교 국가교육과정 총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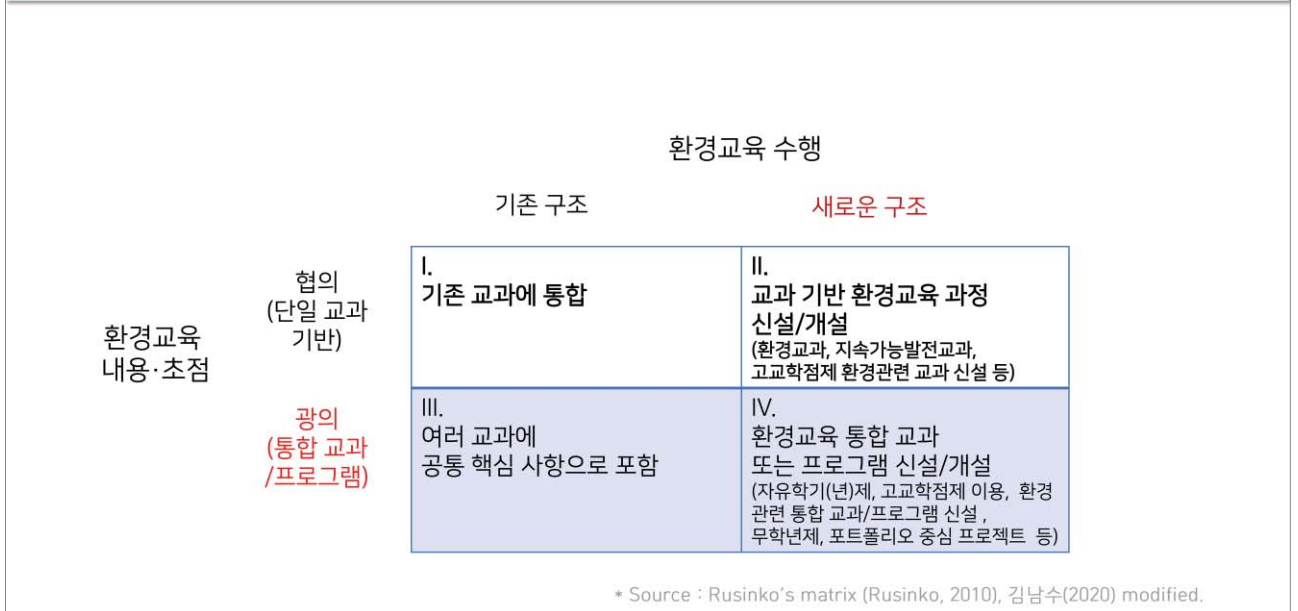
- '환경-지속가능발전'의 정의와 범위는 지속가능발전소양이나 환경소양을 고려하여 재규정될 필요 있음.
- 범교과학습주제를 각 교과에서 반영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지침 또는 해설서를 마련하여 제공해야 함.
 - ☞ 일본, 호주 등
- 학습자의 경험과 학습 중심으로 전인적 성장을 지향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존중과 배려의 대상 범위에 지구생태시스템까지 확대하여 다룰 것을 내용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 2019 개정 누리과정 :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중 하나인 '더불어사는 사람'이 존중하고 배려할 대상에 '자연' 포함. 주요 학습영역 중 자연탐구영역의 학습목표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기른다'(교육부, 2019)
- 통합 사회와 통합과학과 같이 핵심 개념 중심의 통합적 접근 강화 필요. 2015개정교육과정의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핵심 개념에 자연환경, 생활공간, 지속가능한 삶, 생물다양성과 유지, 생태계와 환경,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등이 포함됨.

차기 국가 교육과정내 환경교육 반영 방안 (이선경외,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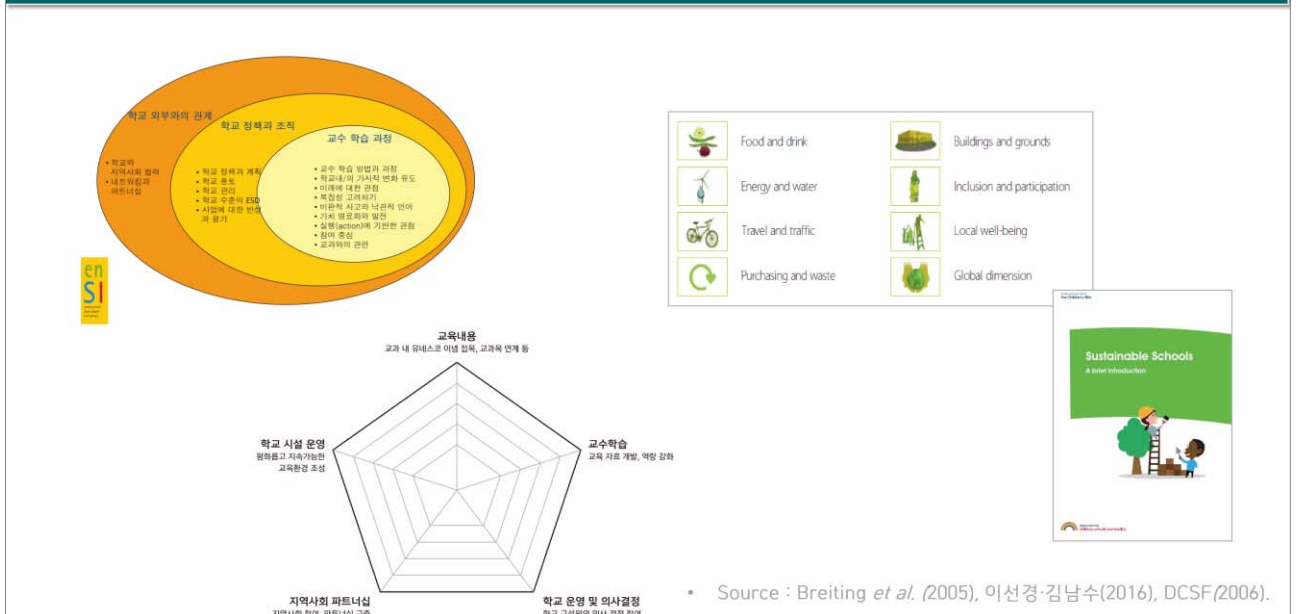
• 교과 교육 과정

- **사회과**의 경우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와 탐구가 기반이 되는 교과 특성 반영, 좀 더 환경교육적 메시지를 명확히 하고, 성취기준이나 성취기준 해설 등에서의 적극적 반영, 기능과의 연계, 환경 역량에 대한 강조. 문제 중심 통합적 접근 지향.
- **과학과**의 경우 지구생태계지식 대부분. 환경태도·가치, 환경역량, 환경실천과 참여 등 부족. 이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 시스템, 에너지 등의 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 내용 구성, 사회와 관련된 과학쟁점(SSI)의 도입, 융복합교육(STEAM) 등과의 연계를 통해 다른 교과와 연계.
- **도덕과**는 가치의 내면화, 도덕적 탐구, 윤리적 성찰, 실천중심의 교과이므로, 교육과정 개발시 각 단원에서 환경태도·가치에 대한 강조와 환경적 실천과 도덕적 실천 연계. '자연·초월과의 관계 영역에서 자연에 대한 강조를 부각.
- **실과/기술·가정과**에서는 공동체/환경과의 관계 형성 지향. '실천적 문제해결'이나 '실천적 학습 경험' 및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 등에 환경 교육 영역의 내용 반영. 교과역량과 환경교육 역량 연계. 환경교육 관련 내용 구체화·명시화하여 포함.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발전 방안 1 :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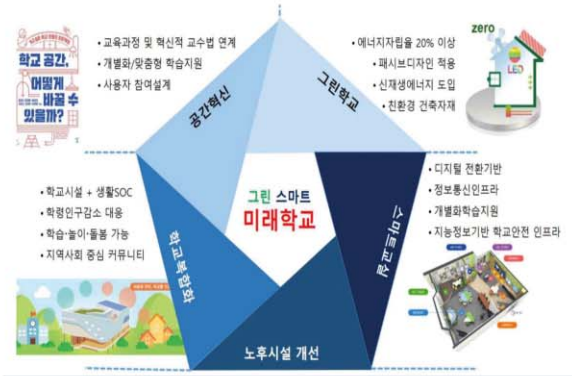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발전 방안 2: 학교 전체적 접근 (Whole-School Approach)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발전 방안 2: 학교 전체적 접근 (Whole-School Approach)



[그림 11-1]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교육체제(Better Normal)



• Source : 배병부의(2020), 교육부(2020)

감사합니다.



- 2019 차기 국가교육과정에서의 환경교육 강화 방안 연구
 - 이선경, 김남수, 주형선, 광영순, 박윤경, 박형빈, 서우석, 전푸름 (환경부, 2019-2020)

발제6

범교과 통합블럭 신설방안

국가환경교육센터

이재영 센터장

범교과통합블럭 (가칭) ‘지속가능한 미래’ 구상

이 재 영
(공주대학교)

1. 생태문명을 향한 교육의 전환

가. 생태문명

생태문명이란 무엇일까? 간단하게 정의해 보면, 모든 사람들의 ‘생태발자국이 1이하인 문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는 풀어보자면, ‘모든 인류가 나처럼 살아도 지구의 생태적 수용능력이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삶의 양식이 보편화된 문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칸트의 정언명령처럼 행위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성과 성찰을 요구한다. 물론 이런 삶의 양식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방식은 문화에 따라 다양할수록 좋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좋은 삶에 관한 우리의 내적 기준을 바꾸는 동시에 그런 삶을 실현하기 위한 외적 조건을 바꾸어야 한다.¹⁾ 그리고 교육 역시 변화의 주체이기 이전에 변화의 대상으로서 생태문명을 향해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생태문명으로의 전환과 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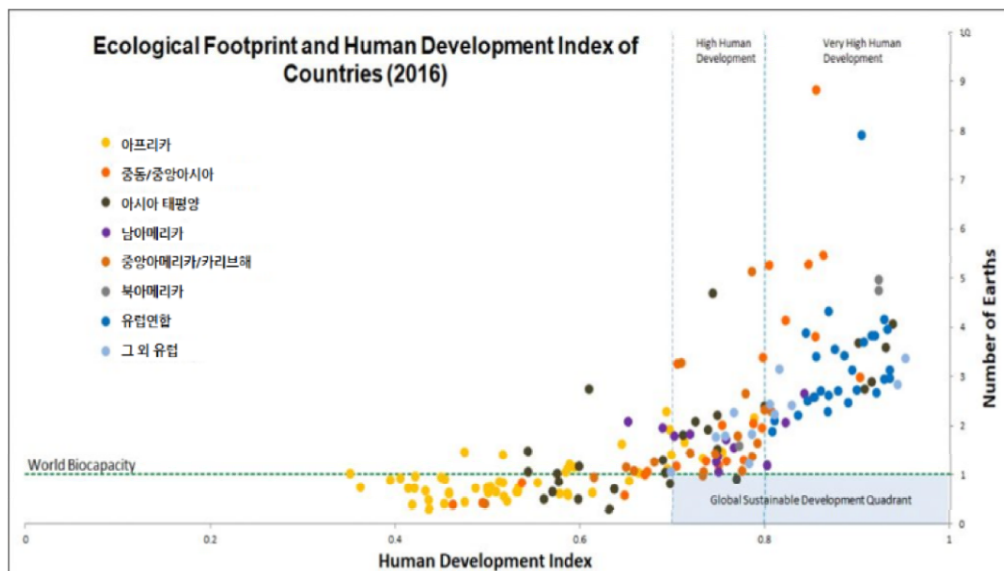


그림 1. 인간개발지수와 생태발자국의 상관관계

OECD의 ‘인간개발지수’와 그 나라 국민들의 ‘평균 생태발자국 크기’를 비교한 연구결과를 통해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인간개발지수’가 0.7을 넘어

1) 이재영(2019)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 교육의 방향, 월간 교육정책포럼 315호.

서는 순간부터 ‘생태발자국의 크기’와 거의 정비례하고 있는데, 이는 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고 더 많은 폐기물을 지구에 남기는 삶을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비 또는 소유의 크기와 삶의 질이 비례한다고 믿는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교육시스템 속에서, 학습자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격을 추구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생태계와 사회체계의 지속불가능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 교육의 과제는 우리 사회를 ‘지구적 지속가능발전 구역(오른쪽 아래 음영)’으로 옮기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²⁾ 즉, 지구의 생태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물질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동시에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문명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의지와 역량을 기르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문화적으로 생태문명은 산업문명의 멧짐(크고 빛나고 죽지 않는)이 야만이나 몰상식이 되는 문명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큰 차, 큰 집, 잦은 해외여행, 마블링이 잘 된 송아지 고기 등. 1995년 건강보호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대중교통수단이나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흡연을 할 수 있었고, 불법이 아니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이제 누군가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는 야만인이라거나 몰상식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 생태전환교육

생태전환교육은 ‘지속가능하고 좋은 삶을 지향’하는 교육이며 이는 곧 ‘학습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구 위에서 다른 사람이나 생명(자연)과 함께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나아가도록 돕는 교육’이다.³⁾

<표 1> 산업주의와 생태주의의 비교

산업주의	생태주의
기계론	생명론
환원주의(deductivism)	총체주의(holism)
개체중심	관계중심
분절적 -> 전문가중심주의	통합적(integrative) -> 거버넌스
효율성(생산성) efficiency, 양적	효과성 effectiveness, 질적
실증주의	비판주의
보편적, 객관적 과학지식	전통적, 맥락적 생태지식
도구적 자연관과 인간관	목적적 자연관과 인간관(생명-생태윤리)
시장의 자기조절능력 기반 경제	공동체, 사회적, 순환 경제
지구적 자본, 국가	지역, 마을
경쟁력	자립력과 공생력

2) Global Footprint Network (2020) Sustainable Development : Sustainable development is successful only when it improves people's well-being without degrading the environment. <https://www.footprintnetwork.org/our-work/sustainable-development/> 2020. 8.

3) O'Brien, C. (2016) Education for Sustainable Happiness and Wellbeing. Routledge.

상품화된 자아, 공동체의 붕괴,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 속에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자기발견, 자기이해, 자기실현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자립력과 공생력)을 기르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영역은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환경생태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건탐구와 같은 통합적이고 심도있는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지구생태시민’으로 변화할 수 있고, 이런 새로운 인류(지구생태시민)와 함께 새로운 생태문명도 조금씩 태어날 수 있다.

생태전환교육은 생태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의지와 역량을 생산하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이라는 의미(변화의 주체로서의 교육)와 생태문명으로 가기 위한 교육 자체의 전환(변화의 대상으로서의 교육)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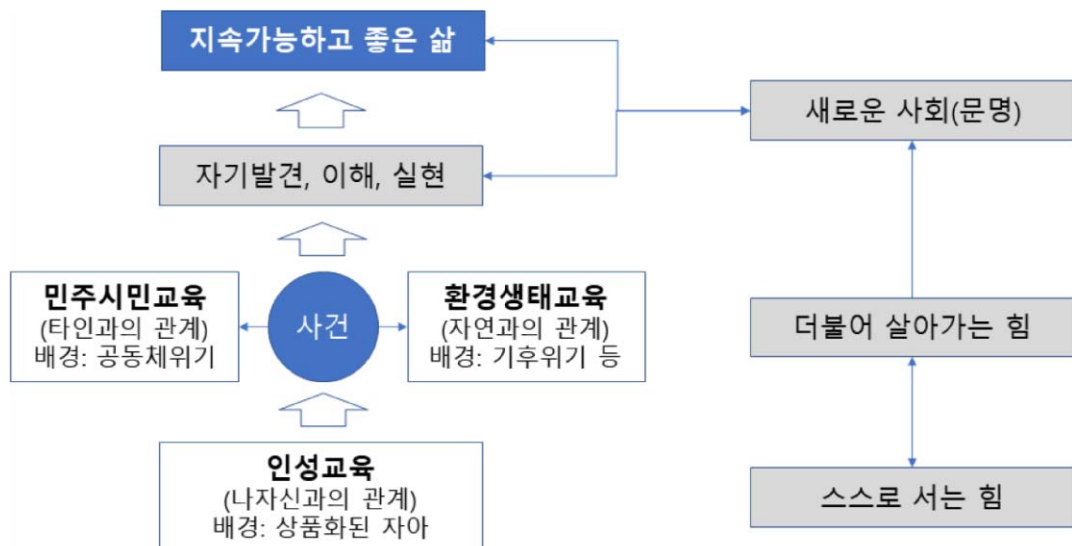


그림 2. 지구생태시민과 생태문명의 관계

다. 생태전환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역량

1) 추구하는 인간상: 지구생태시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자주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있는 사람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서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이 현실이 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존의 인간상으로 충분한 걸까?

생태전환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한마디로 ‘지구생태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생태시민이란 ‘지구인으로서 기후위기를 포함하여 지속불가능에 처한 인류의 생태적, 사회(정치경제)적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전환 과정에 참여하는 민주 시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구생태시민은 세계시민이자 민주시민이 되면서 동시에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생태시민이다. 따라서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을 깊이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변화를 위해 참여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시대에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홍익인간을 구현한 것이 바로 지구생태시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보편성이 21세기를 위기와 함께 시작한 우리에게 구체화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지구생태시민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2) 핵심역량: 자립력과 공생력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흔히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불린다.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일반핵심역량으로 자기관리, 지식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 등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 발표 직후에 수행된 다음의 연구는 역량을 여전히 지식중심적으로 접근하는 전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지식의 체계적 전수와 습득을 통한 지력의 개발은 곧 역량의 개발이라는 점에서 볼 때, 초·중등학교의 내용(주지) 교과에서는 지식의 체계적 전수와 습득은 역량 구현의 주요 수단이자 각 학교의 여전한 핵심 기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홍후조 외, 2016)⁴⁾

홍후조 외(2016)는 “역량중심교육에서는 주요한 학습법으로서 일련의 프로젝트 수행이 강조된다. ... 역량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휘되는 다양한 차원과 기능으로서, 상대적으로 고차원적 능력을 의미한다.” 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프로젝트 학습의 요체는 지력의 개발’ 이라거나 역량이 ‘지식의 체계적 습득에 의한 지력의 개발’ 과 관계된다는 산업주의 역량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에서 초래된 코로나19 등 전 지구적 위기상황은 우리에게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경쟁력이 아니라 자립력과 공생력이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웃과 자연을 고려하면서 자기 삶을 설계하고 꾸러가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생태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수십년 동안 농업, 농학, 농민, 농촌을 무시해 온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매우 낮은 실정이고, 각국이 식량을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었을 때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자립력과 공생력은 기존의 추구하는 인간상이나 핵심역량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핵심역량이 교과별 핵심개념이나 내용의 하위 수준에서 기능으로 전락해버린 점에 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런 역량들을 길러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중심이 교과가 아니라 역량이 되어야 한다.

2. 기후위기와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

가.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만은 아니다.

4) 홍후조, 김대영, 조호제, 민부자, 하화주(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과 교과 연계 방안 연구 - 역량과 범교과 학습 주제를 중심으로 -, 교육부.

기후변화는 어떤 문제인가? 아이러니하게도 기후변화가 환경문제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이야말로 기후환경교육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예일대학교 기후변화커뮤니케이션센터(Leiserowitz 등, 2018)⁵⁾가 미국 성인 1,2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후위기를 환경쟁점(75%)이나 과학쟁점(69%)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지만, 그 밖에 극심한 날씨(64%), 농업(63%), 건강(58%), 정치(57%), 경제(54%), 인도주의(51%), 도덕(38%), 빈곤(29%), 국가안보(27%), 사회정의(24%), 종교(9%) 문제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이는 기후변화를 생태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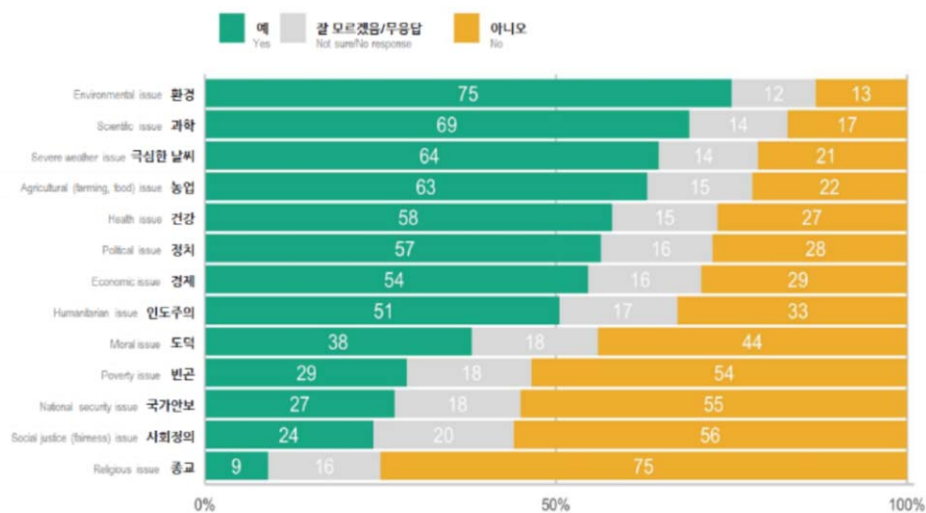


그림 3. 기후위기의 성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지금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코로나19라는 안전문제는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난 것이며, 그로 인해 2020년 1/4분기에만 3억 명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가난한 여성들의 일자리가 특히 많이 없어졌으며, 그 여성의 아이들의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위기-질병-실업-성차별-인권으로 이어지는 고통의 사실을 이해해야 만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본질을 알고 대응책을 만들 수 있다.

그레타 툰베리 역시 인터뷰에서 “기후위기는 단지 환경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인권, 정의, 정치적 의지의 위기이다. 제국주의, 인종 차별, 가부장제에 의한 억압 체계가 그것을 만들어 내고 연료를 공급” 했다고 주장했다.

나. 기후변화와 인권 문제

기후변화는 1948년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이래 가장 큰 인권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최선의 시나리오로 간다고 해도 세계적으로 최소 수억 명에서 수십억 명

5) Leiserowitz, A., Maibach, E., Roser-Renouf, C., Rosenthal, S., Cutler, M., & Kotcher, J. (2018) Climate change in the American mind: March (2018). Yale University and George Mason University. New Haven, CT: Yale Program on Climate Change Communication.

의 사람들의 절대적인 빈곤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유엔인권위원회(Human Right Council, 2019)⁶⁾의 경고이다.

2018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 William Nordhaus(2019)⁷⁾: “기후변화는 우리 세계를 위협하는 거상이자 세계경제의 궁극적 도전” 이라고 주장했다. 2001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 Joseph Stiglitz(2019)⁸⁾는 기후변화를 ‘제3차 세계대전’ 이라고 불렀다. 프란치스코 교황(2019)⁹⁾ 역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난한 자들과 미래세대를 향한 부정의하고 잔인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적인 인권단체나 기관조차 기후변화가 전 세계 사람들의 인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이 지속불가능한 세계를 지속가능하도록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변혁적인(transformative) 혹은 전환적인(transitional) 실천과 참여이다.

각 대륙마다 기후위기가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른데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가뭄과 사막화, 그로 인한 식수의 부족과 농작물 수확량의 급감이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홍수와 범람이, 프랑스에서는 흑한이, 호주에서는 폭설이, 미국에서는 허리케인과 산불이, 태평양의 맑은 섬에서는 해수면 상승이, 스위스에서는 만년설이 무너져 흘러내린 뒤 나중에 나타날 물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무수한 해양생물들이 위기를 맞고 있고, 그와 함께 그들에게 의존해 살고 있는 수억 명의 사람들의 생존도 위기를 맞고 있다.

1.5도씨만 연평균 기온이 올라도 약 4억 5천만 명의 삶이 위태로워질 것이며, 해수면 상승으로 최소 1천만 명, 홍수, 가뭄, 폭설, 폭염, 산불 등으로 인해 1억9천만 명이 조기 사망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도씨가 오르면 1억~4억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며, 10~20억 명의 사람들이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한다. 2080년까지 세계 곡물생산량의 30%가 줄어들 위험이 있고, 2030-2050년 사이에 해마다 약 25만 명이 추가로 영양실조 등으로 죽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마다 약 1억 명이 추가로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 집을 잃는다는 것은 치명적이 위협이다. 2050년까지 약 1억4천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한다. 2018년에만 135개 나라에서 약 1천8백만 명이 환경난민이 되었는데 이는 분쟁으로 인한 난민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이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나 지역에만 관심을 가져

6) 이 부분은 인권위원회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혀 둔다. Human Right Council (2019) Climate change and poverty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extreme poverty and human rights,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7) William Nordhaus (2019) “Climate Change : The Ultimate Challenge for Economics,” American Economic Review, 109(6): 1991-2014.

8) Joseph Stiglitz (2019) “The climate crisis is our third world war. It needs a bold response,” Guardian, June 4, 2019,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9/jun/04/climate-change-world-war-ii-green-new-deal>.

9) Fiona Harvey and Jillian Ambrose (2019) “Pope Francis declares ‘climate emergency’ and urges action,” Guardian, June 14, 2019,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9/jun/14/pope-francis-declares-climate-emergency-and-urges-action>.

서 가난한 사람들은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탈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산사태 등)을 받기 쉽고 그런 변화에 견디는 힘이 취약한 지역과 집에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자연재해와 질병과 곡물가 상승 등에 취약하다. 그리하여 기후변화는 기존의 가난과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부유한 10%가 온실가스 배출의 50%에 대해 책임이 있고, 하위 50%는 온실가스의 10%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상위 1%는 하위 10%보다 175배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부자들은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더 혜택을 많이 누리고, 그러면서도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온실가스도 적게 배출하고, 혜택도 별로 누리지 못했으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는 가장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이것이야말로 빈곤과 불평등이 만나 사회적 정의가 무너지는 지점이다. 더 심각한 것은 기후변화가 이런 빈부격차를 그 이전보다 25%가량 더 벌어지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기후변화는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인류가 지난 50년 동안 어렵게 이루어놓은 성취들을 모두 물거품이 되게 만들 위험이 있다.

ILO에 따르면 전 세계 일자리의 40%에 해당하는 약 12억 개의 일자리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환경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1.5도씨 시나리오가 최선의 경우로 간다고 해도 2030년까지 전체 working hours(노동시간)의 2%, 즉 7억2천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2019년 현재 49개 국가, 245개 지역, 7천 여 개의 도시, 6천 여 개의 회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하거나 실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함께 고려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와 인권문제를 연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접근과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통합적, 간학문적으로 배우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사회에서는 이런 약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각별한 고려와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기후거부자들(climate denier)을 포함하여 이러한 사회적 변혁과 전환에 대해 저항하는 안티세력들이 결집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주의자, 국수주의자, 나찌즘이나 파시즘 등이 등장하고 이로 인한 새로운 인권침해의 가능성(미국에서 발생한 흑인사망사건 등)도 없지 않다.

그동안 기후환경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은 서로에 대해 너무 관심이 없었고 무지했다. 이제라도 진지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기후환경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못지않게 인권교육을 결합했을 때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환경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인권을 보장하는 의미를 갖는다.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환경적 변화 상황에 대해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능하다면 교육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학생인권조례에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에 대해 배울 환경학습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은 이미 헌법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던 바가 있다.

다. 환경정의, 사회정의 그리고 평화¹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지구화는 사회정의, 평화,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적대적이며,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환경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를 상상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탈규제와 단기이윤 극대화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 공공선에 대한 비전, 지구적 경제발전의 장기적 함의를 요구하는 사회정의, 평화, 환경정의와 대척적인 관계에 있다. 증가하는 빈곤, 온실가스 배출, 사회적 불평등, 전통문화의 붕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방향으로 세계경제가 바뀌면서 나타난 부산물이다. ‘경제성장이 안되면 일자리를 잃고 삶이 엉망이 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의 주장은 반드시 통합적 교육을 통해 철저히 의심받아야 하고, 새로운 경제적 비전을 찾으려 권장되어야 한다.

사회정의, 평화, 환경정의는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상호의존적이고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것들은 서로를 고려하면서 함께 추구하지 않으면 달성될 수 없는 목표들이다. 지구적 자본주의는 군국주의, 제국주의, 전쟁, 그리고 전 지구적 환경파괴와 같은 인간 억압의 기제를 형성하고 증폭시키는 체계적인 공통분모이다. 우리는 인간해방의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주제별로 자기 영역에 갇혀서 본질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의 주제가 다른 주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식의 생각에 도전하면서, 이런 여러 주제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제안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별로 잘 정리된 이론이나 문서가 아니라 국제협약이나 지역의 쟁점(사건)들을 심도있게 살펴보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 우리는 마을, 지역, 국가, 세계 사이, 그리고 각자의 좋은 삶과 타자와 지구의 웰빙 사이의 신화화된 분리를 넘어서 연결하기 위한 다리를 찾아야 한다.

교육가는 반드시 표준화 운동(정책)에 도전하고 교육담론을 배타적인 학술적 책무성에서 더 확장시켜 사회정의, 평화, 환경정의를 포함하는 책무성으로 바꾸어야 한다. 오늘날의 학교는 지배적인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면서 다양한 학생들을 하나의 현존하는 사회질서의 논리에 동화시키는 기능을 해 왔다고 평가한다.

노골적으로던 잠재적으로던 학교는 교육과정을 통해 이런 스테레오타입을 재생산하고 정당화했으며, 보편적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특정한 지배 형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는 학교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실제적인 문제(쟁점)들이 교육과정의 중심에 놓이고 이를 중심으로 대화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 해석, 적용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프레이리의 해방의 교육학과 일맥상통한다.

현재 상태를 바꾸려면, 교육대학의 교원양성과정을 혁신해야 하고, 변혁과 전환의 거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스테레오타입의 헤게모니를 반영한 가치를 전달하는 문제는 유치원-고등학교 교육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에게 제도화된(교육과정) 지식만을 전달하도록 교사들을 준비시키는

10) 이 부분은 Andrzejewski., Baltodano, M. & Symcox, L. (2009) Social Justice, Peace, and Environmental Education: Transformative Standards, Routledge의 302~312쪽의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임을 밝혀둔다.

교사교육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시험과 선발의 과정을 통해서 교사들은 현실 기득권의 가치와 학술적 뛰어난이라는 담론에 갇힌 채 보수적인 입장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제부터는 교사를 진실을 전달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변혁적 지식인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3. 범교과학습의 의미와 가능성

가. 정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범교과학습을 “사회 변화에 따라 제기되는 국가 사회적 요구와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학습자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으로, 단일 교과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 교과에 걸쳐 교수되어야 할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 배경과 역사

범교과학습에 관한 내용은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유사한 접근이 있었다. 예를 들어, ‘도의(道義)교육’을 전 교과 및 기타 교육활동을 통해 연간 35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양 국가들에서 범 교육과정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된 것은 1980년대 말부터이고, 한국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 개정 당시 ‘범교과 영역’이라는 개념이 처음 제안되었으며,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시에 ‘범교과 학습’이라는 말이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쓰이고 있다. 2009 개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학습주제는 다음과 같다.

- 2009 개정 교육과정: 39개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한국 문화사 교육, 한자 교육, 녹색 교육, 독도 교육 등

- 2015 개정 교육과정: 10개 (현재 12개)

민주시민, 인권, 인성, 다문화, 안전·건강, 진로, 통일, 독도, 경제·금융, 환경·지속가능발전, [청렴, 미디어리터러시 (나중에 추가)]

다. 교육과정에서의 위치

교육과정 총론의 [학교급별 공통사항]에서는 범교과학습주제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배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에서는 범 교육과정이라는 개념으로 교육과정 개혁을 위한 시도의 일부로 곧잘 도입되고 있다. 범교과학습주제별 세부목표와 핵심내용, 지도방법을 상세하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고 각 교과에서 알아서 반영하는 수준이다.

“ ‘교과’ 는 학문적세계를 제도화한 실체로서, 경직성을 가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국가 사회적 요구에, 다른 한편으로는 학습자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전통적 교과의 틀을 고수하고자 하면, 사회가 요구하는 것과 학교 지식 간의 간극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김용, 2020)¹¹⁾

“외국의 범교육과정은 교과 교육과정을 가로지르는 것으로, 교과 교육과정 확정 이전에 사전 조치적이며, 내용적 성격을 갖는 데 비하여, 한국의 범교과 학습은 기존 교과 교육과정존재를 인정된 위에, 사후 조치적이며, 방법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8) 이 사실은 외국의 범교육과정이 교육과정 안으로 포섭되어 있는 데 비하여, 한국의 범교과 학습은 상당 부분국가 교육과정 밖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김용, 2020)

라. 범교과학습주제를 바라보는 관점

1)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

이 관점에서는 범교과학습주제를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지만 재차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하거나 또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국가·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기존 교과의 벽에 가로막혀 있지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주제라고도 말할 수 있다. 상당수의 범교과학습주제는 교육과정 논리보다는 법률이나 정책에 의한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선정된 것들이다. 그 결과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주제가 39개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영역별 이해관계자 압력의 결과라는 해석도 분분한 실정이다. 결국 국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범교과학습주제는 임의적으로 달라져 왔고,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 침해라는 측면에서 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세월호 사고 후에 안전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자, 학교 수영 수업을 강화하고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원 지망자들에게 심폐소생술 연습을 의무화하는 등 교원들의 안전 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대책으로 제안된 것은 전형적이다.” (김용, 2020)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범 교과 학습 주제의 문제와 적용 경로와 관련해, 이미숙 외(2009)의 연구에서는 위로부터의 압력에 의한 내용의 추가, 교과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

11) 김용(2020) 한국과 일본의 범교과 학습 관련 진흥 법령 및 지원 체제 비교, 교육법학연구, 32(1), 55-81.

한 교두보, 범 교과 학습 내용 선정 절차 관련된 문제를 들고 있다.(이미숙, 2010)¹²⁾

<표 2> 교육진흥법에서 구사하는 정책 수단의 유사성

	문화	법	경제	인성	과학	환경	외국	식생	발명	통일	체육	산업
종합계획수립	○			○		○	○	○	○	○	○	○
위원회 설치	○	○	○	○	○	○		○		○	○	○
기관 설립	○	○	○		○	○	○	○	○	○	○	○
교원 연수	○	○		○		○			○	○	○	
전담 인력	○											
경비 지원	○	○	○	○	○	○		○	○	○	○	○

* 법 제목은 4면에 열거된 법의 첫 글자 또는 두 글자로 나타냄

2) 교과 교육과의 관계성에는 보는 관점

교과와의 관계에서 볼 때 범교과학습주제를 부차적이거나 종속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관점도 존재한다. 기존의 교과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범교과학습주제들은 마치 시루떡에 팥알갱이를 뿌리듯이 필요한 곳에 조금씩 추가하면 되는 그런 정도의 의미 이상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이 확장되면, “너희는 교과가 될 자격이 없어.” 혹은 “지금은 범교과학습 주제로 남아 있지만 언젠가 교과가 되려고 노리는 거지?” 라는 의혹으로 변모한다. 교육부는 지난 10년 동안 환경교육을 교과가 아니라 범교과주제로만 취급함으로써 과학과나 사회과 등의 종속적인 지위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 역시 교과중심적 관점이 반영된 결과이다. 아래의 연구보고서는 이와 같은 관점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범교과 학습 주제의 대부분 내용은 교과교육을 통해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홍후조 외, 2016)

“(결론) 10개의 범교과 학습 주제는 기존의 39개의 주제를 포괄하며, 사회(도덕·역사·지리 등), 실과(기술·가정), 예술(음악 미술), 체육(보건 안전) 등을 비롯하여 여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취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서 교과통합적으로 교수학습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범교과학습 주제는 더 줄어도 좋을 것이다. 가령 창의성, 진로, 사회협동성 등 모든 교과 내에서 통합적으로 가르쳐질만한 것을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데에 그쳐야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이미 교과에 의해 충분히 반영된 너무 많은 주제들을 별도로 강조하는 식의 중복된 강조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왜곡시키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과부하를 낳는다.” (홍후조 외, 2016)

12) 이미숙(2009) 범교과 학습에 대한 교육 전문가 및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분석, 한국교육 (37) 3, 183-202.

3) 기존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방법론적 접근에서 보는 관점

이는 범교과학습을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기초하여 교육활동의 한 영역으로 인정하는 관점이다.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교과, 특별활동, 생활지도의 영역에 공통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육목표를 추출하고, 이를 교육과정 통합의 중심 조직으로 삼아 범교과적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략적 노드(node)로 사용된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이자 시민으로서 학생이 지속가능한 바람직한 삶을 맥락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주제를 포괄하는 교육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조상연, 2020)¹³⁾

범교과학습이라는 개념적 틀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수준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 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생태전환경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과 전환의 핵심고리로 제안하고자 한다.

“범교과 학습은 기존 교과 학습 방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다른 교육 방법인 동시에 기존 교과 학습 내용의 한계를 넘어서는 다른 교육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과정 통합에 대한 Bean(1995)의 표현을 빌리자면 범교과 학습은 기존 교과교육과는 다른 교육 방법(doing the same things differently)일 뿐 아니라 기존 교과교육이 담지 못하는 다른 교육 내용이다(doing something different).” (조상연, 2020)

마.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실태

다음에는 학교급별로 범교과학습 교육과정 운영 실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췌, 인용한 것이다(최광락 등, 2016).¹⁴⁾

초등학교의 경우, 범교과 반영 요구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에 법적으로 요구하는 시간은 113시간(약 6.6단위)이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시간은 217시간(약 12.8단위)이다. 초등학교 6년 동안 요구하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법적으로 583시간(약 34.3단위)으로 초등학교에서 6년 동안 이수해야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인 680시간(40단위)의 86%에 해당한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시간을 환산하면 1,096시간(약 64.5단위)으로 이는 초등학교에서 6년 동안 이수해야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680시간(40단위)의 161%로 일주일에 약 5.4시간을 범교과 학습 시간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범교과 교육을 모두 실시할 경우 일주에 하루 정도를 범교과 교육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는다.

중학교의 경우, 범교과 교육을 위해 중학교 3년 동안 요구하는 시간으로 계산할 경우는 법적 요구 시간은 310시간(약 18.2단위)으로 중학교 3년 동안 이수해야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306시간(18단위)보다 많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시간은 637시간(약 37.5단위)으로 중학교 3년 동안 이수해야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306시간(18단위)

13) 조상연(2020) 우리나라 범교과 학습의 개선 방향 논의, 인격교육 14(1), 91-117.

14) 최광락, 강인환, 배민정, 왕범식(2016) 학교급별 범교과 학습 교육과정 운영의 발전적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서울교육정책연구소.

의 208%로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약 6.3시간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범교과 교육을 모두 실시할 경우 일주에 하루 정도를 범교과 교육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는다.

고등학교의 경우, 범교과 교육을 위해 고등학교 3년 동안 요구하는 법적 시간은 310시간(약 18.2단위)으로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이수해야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408시간(24단위)의 약 76%이며,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시간인 637시간(약37.5단위)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이수해야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408시간(24단위)의 약 156%에 달한다.

<표 3> 학교급별 범교과학습 반영 요구 시간

학교급	시수		법적요구시간		교육부/교육청 시간*	
			연간	학교급별 총시간	연간	학교급별 총시간
초등학교	요구시수		113 (6.6단위)	583 (34.3단위)	217 (12.8단위)	1,096 (64.5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2009개정 교육과정	102(136)**	680	102(136)*	680
		2015개정 교육과정	102(168)*	744	102(168)*	744
중학교	요구시수		116 (6.8단위)	310시간 (18.2단위)	225 (13.2단위)	637 (37.5단위)
	창의적 체험활동시수		102	306	102	306
고등학교	요구시간		116 (6.8단위)	310시간 (18.2단위)	225 (13.2단위)	637 (37.5단위)
	창의적 체험활동시수		136	408	136	408

* 교육부 연간 요구 시간은 초등 160시간(약 9.4단위), 중등 178시간(약 10.9단위)이며, 학교급별 요구 시간은 초등 835시간(약 49.1단위), 중등 521시간(약 30.6단위)이다.

** 초등학교의 연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는 3~6학년의 평균 시수로 나타내었으며, ()의 값은 1~2학년군의 평균 시수이다.

법적으로 규정된 시간만으로도 초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의 86%, 중학교에서는 101%, 고등학교에서는 76%이상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나라 사랑교육, 민주시민 교육과 같이 운영 시수를 정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시키면 더 많이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처럼 기관별 범교과 운영 요구 시간이 너무 많아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된다. 법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요구한 순위는 정책·안전기획관 51시간, 체육건강과 46시간, 학생생활교육과 10시간, 민주시민교육과 4시간, 교육혁신과 1시간이다.

바. 기존 논의의 한계

범교과학습주제는 분과적 경향에 대한 대응책으로 여겨지고, 그 필요성도 인정된다. 범교과학습주제들이 교과통합적 접근을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하면서도 주제들은 여전히 개별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범교과학습주제들이야말로 자립력과 공생력을 위해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주제라는 인식은 거의 전무하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이 역시 통합적 성격을 띠는 주제 영역도 있지만, 특정하고도 구체적인 주제가 많아 실질적인 범 교과 학습의 주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범 교과 학습의 체계와나 쟁점을 도출해 정당화를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왕관은 · 박창은, 2015).¹⁵⁾”

범교과 학습 주제는 대체적으로 학교현장에서 형식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학교교육과정에 내재시켜도 교과서에 의존하는 수업 방식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동안 범교과학습주제들이 교육과정 밖에서 수업의 변두리에 놓여 있었다는 점과 교육과정 밖에서 법률과 정책으로 범교과학습주제에 포함되도록 요구하고 이를 교육과정과 수업에 반영하라는 압력을 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범교과학습주제에 대한 무분별한 등장을 제어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고,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범교과학습주제는 단위학교의 자율과 관련해 논의될 필요하다.” (왕관은 · 박창은, 2015)

범교과학습주제를 개별적인 가치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취급함으로써 그것들이 전제로서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추구하는 인간상과 사회상의 수준에서 논의하지 않음으로써 교육과정의 총론 수준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제안하지 못했다.

범교과학습주제의 통합 교육과정으로서의 한계의 경우는 범교과학습의 정당화를 위한 법과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를 제기하는 것이다. 내용과 제도가 총체적으로 결합되어야 범교과학습 주제의 실효를 담보할 수 있다.

“범교과학습주제와 관련된 사항에서는 국가적 통제라기보다는 압력단체의 요구에 의한 입법부의 통제가 더욱 문제가 된다. 단위학교의 자율을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범 교과 학습 주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범 교과 학습 주제와 관련해서는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권한과 관련해 단위학교의 자율이 요청된다.” (왕관은 · 박창은, 2015)

범교과학습주제의 의미를 지적하는 연구에서조차도 이들은 국영수사과 등 지식중심의 경쟁력 교육에 비하면 덜 중요하거나 여전히 종속적인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현재의 대학입시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학생부종합전형처럼 최근 고교교육-대학입시연계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정성적이고 과정중심적인 평가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범교과학습의 위상을 제고하게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15) 왕관은, 박창은(2015) 범 교과 학습주제의 한계 논의, 통합교육과정연구, 9(2), 53-70.

사. 교육과정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서울시교육청의 사례 연수에서 보듯이 이미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는 주당 6시간 이상을 범교과학습주제에 대해 가르치도록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이 주제들은 교육과정의 주변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차기 교육과정에서 지구생태시민 양성을 목표로 자립력과 공생력을 기르기 위해 교육과정의 중심과 주변을 아래와 같이 뒤짚는 혁신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교과 지식과 범교과학습주제는 물론 교과 외 활동까지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배움의 경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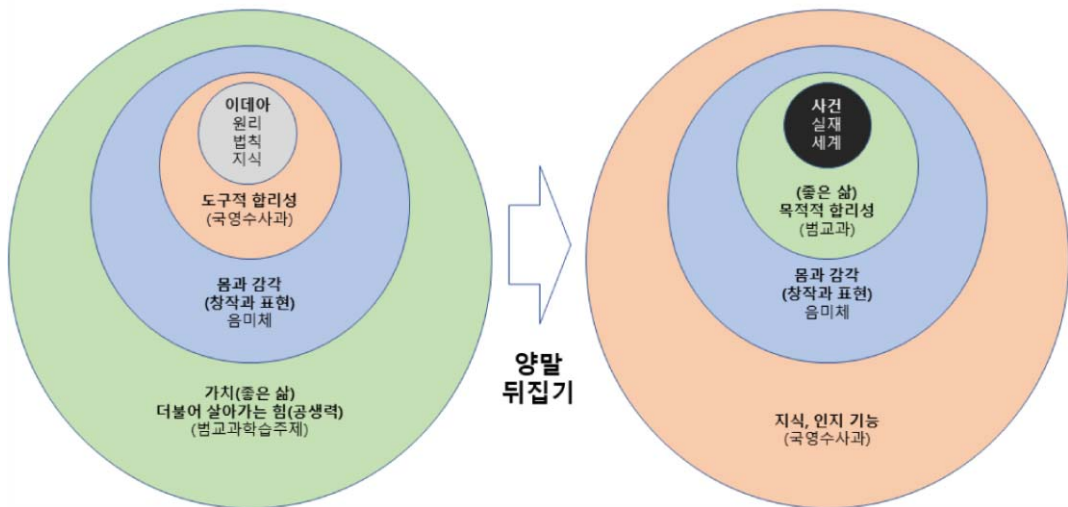


그림 4. 범교과학습주제에 담긴 가치중심 교육으로의 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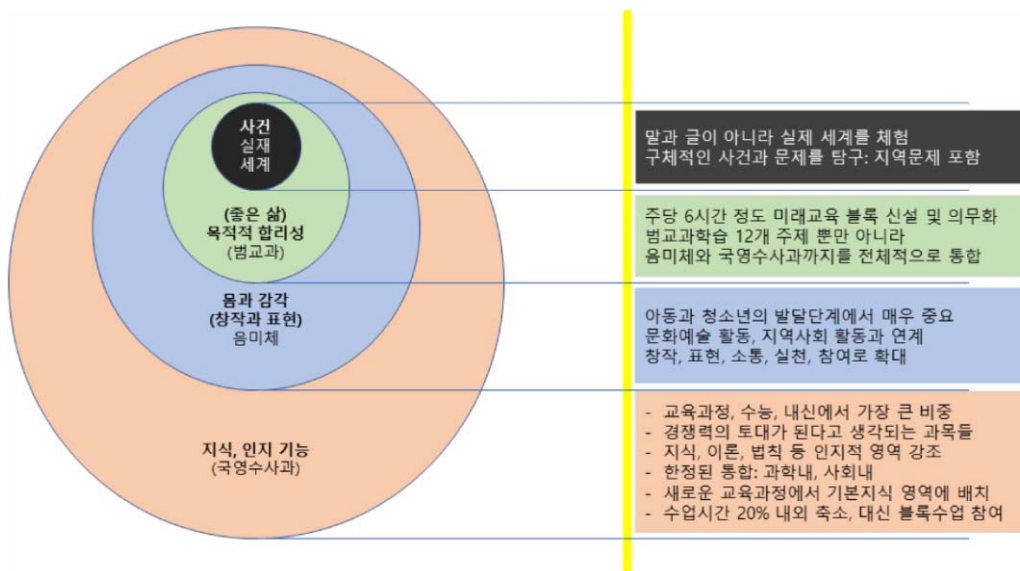


그림 5. 교과, 범교과, 교과 외 활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수업블록의 설계

4. 사건중심-프로젝트 탐구모형

가. 통합적 접근과 교과들

교과를 가로지르는 통합적 접근은 내재적,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다. 지금 학교에서 확고한 교과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학문은 근대적 세계관과 산업문명의 요구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 그런 이유로 교육의 생태적 전환이란 산업문명이 만들어낸 지금의 교과 중심 체제를 해체하는 과정과 불가피하게 연결되어 있다.

“학교 교과는 한번 교과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그 지위를 획득하기까지의 과정이 비교적 복잡하고 그 시간도 오래 걸리는 편이다. 또한 학교 교육 안에서 그 영역과 지위를 확보한 교과는 변화 가능성과 관련이 깊은 실용적·교수학적 전통보다는 안정성과 관련이 깊은 학문적 전통의 경향을 강하게 취하면서 경성화 된다. 학교 교과 안의 교육 내용 역시 학문적 실용적 교수학적 가치에 따라 기존 지식의 변형(축소/확대 또는 대강화/상세화) 혹은 새로운 지식의 도입 등으로 조절되기는 하지만 그 조절 과정 및 결과가 교육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적시에 반영할 정도로 유연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조상연, 2015)¹⁶⁾”

필요하다는 말은 많지만, 교과들 사이에, 특히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인문학, 예술 사이에 강도 높은 통합이 실현되고 있다는 연구보고는 거의 없다. 고작해야 통합과학, 통합사회 정도가 대부분이고, 그것도 물리적 통합을 넘지 못하고 있다. STS보다 퇴행한 STEAM은 성공적인가? 왜 요즘은 STEAM에 대해 별 말이 없는가? 코로나19 사태를 STEAM은 어떻게 다를까?

나. 통합적 접근과 범교과 학습주제들

범교과학습주제가 모든 교과에서 가르칠만큼 중요성과 범용성이 있는 주제라면, 이 주제들 사이의 통합은 어쩌면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주제 역시 유사교과(pseudo-subject)처럼 작동하면서 주제들 사이의 통합을 위한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범교과학습주제를 다루기 위한 시간적 제약에 의해 더욱 심화된다. 2016년 실시된 교육부 연구에 따르면 범교과 학습주제에 대한 국가의 요구시간은 약 200시간이며, 이는 주당 약 6.5시간에 해당함. 그러나 실제로는 그 1/4 이하 정도에 머물고 있다.(서울시교육청, 2016)

“우리나라는 제1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지금까지 국가 정책적으로 강조하는 교육 활동을 그대로 범교과 학습 주제에 반영해왔다 그러다보니 범교과 학습 주제는 지역 및 단위 학교 수준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다루어야 하는 국가교육과정 차원의 필수 학습 내용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범교과 학습 주제와 관련된 수많은 학교교육 법률 및 각종 규칙과 조례로 인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들은 국가·사회적으로 강

16) 조상연(2015) 국가교육과정 체제에서의 학교교과 생성에 대한 논의,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하는 교육 내용과 시수까지도 범으로 규정해놓고 있어 지역 및 단위학교에서는 필수 교육활동으로서 이들을 운영할 학교 교육과정 영역과 시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정해진 교육내용을 획일적으로 다루는 방식은 범교과 학습이 넘어서려는 기존 교육의 한계 중 하나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범교과 학습은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수많은 지침과 의무 속에 갇혀서 본연의 정체성과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듯하다.” (김용, 2020)

다. 통합성의 강도

노르웨이의 경우 2017 핵심 교육과정 에 제시된 간학문적 주제가 우리나라의 범교과 학습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 이들은 건강과 생활 기술, 민주주의와 시민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등 세 가지이다

“노르웨이의 간학문적 주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특징은 첫째, 간학문적 주제가 개인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요하는 국가·사회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둘째 각 간학문적 주제의 목적과 의미 및 중요성을 명확히 밝히며 셋째 이들 주제를 학교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와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넷째 각 간학문적 주제의 관련 분야와 이슈까지 제시해주는 등 매우 자세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용, 2020)

범교과학습을 떠나서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더 이상 수학, 과학 등의 과목을 포기하는 것은 배워야할 내용이 많고 어려워서 그런 점도 있겠으나, 학생들로 하여금 그런 지적 부담을 이겨낼 만한 내적 동기와 에너지를 만들어내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동기와 에너지는 결국 학습과정과 자기 삶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에 따른 결핍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거듭 말하거니와 범교과 학습 주제는 다른 어떤 교육 내용이나 주제보다도 학생의 삶과 맥락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국가교육과정의 책무성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다룰 지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결정권과 자율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김용, 2020)

현재의 교과중심적이고 분절적인 접근이 갖고 있는 한계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실제 세계의 복잡성, 역동성, 불확실성, 다양성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통합수업 모델들이 제시되었다. 요즘 아이들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나 이를 실제 현실세계의 문제에 적용하지 못하고 문제해결력이나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위험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 필수적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지식과 학문 중심의 이론적, 분절적인 수업이 아동과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행복한 시절’을 빼앗아가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나타난 것은 꽤 오래된 일이며, 그에 대한 대응으로 일정한 영역 내에서의 통합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통합과학, 통합사회나 공통과학, 공통사회도 일부는 그런 노력의 산물이고, 1980년 대의 STS나 2010년대의 STEAM도 마찬가지이다. 2019 개정 교육과정 이후 프로젝트 학습이 강조되고 있고, 혁신학교 등에서 학교에서의 배움과 학교 밖에서의 삶을 연결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합적 접근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뚜렷한 모델이 없었던 이유는 이를 교수학습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계를 보는 존재론, 인식론적 관점의 문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 접근에서는 기존에 경쟁력을 위해 봉사해온 지식교육을 가치교육(공생력)과 감각교육(자립력)을 위해 봉사하도록 동심원상의 위계를 전도시킨다. 여전히 교과중심의 교육과정은 건재하고 실질적으로 교과의 벽을 허물기 위한 새로운 수업 블록을 설계하거나 팀티칭과 같이 새로운 수업을 시도하고자 할 때 겪게 되는 학사운영과 제도적 장벽들은 상상력을 가로막고 있다.

라. 통합적 수업 모형: 사건중심 탐구

1) 왜 사건인가?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기호(말, 글, 이미지 등)가 아니라 실제 세계를 탐구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우발적인 세계의 실제 모습을 탐구하기 위해 도입한 탐구와 사유의 단위가 바로 ‘사건’이다. 핀란드 교육과정에서 탐구대상인 현상(phenomena)이 여기서의 사건과 유사하다.

“사건을 사유한다는 것은 물질적 차원과 정신적 차원, 자연적 차원과 문화적 차원이 접촉하는 경계면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작업이다. 물질은 물질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따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면을 밝힘으로써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포괄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 하나의 사건을 고립적으로 생각하느냐, 다른 사건들과 계열화해서 생각하느냐의 차이이다. 사건이란 고립적으로 고려되었을 때는 하나의 단순한 표면효과이다. ...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은 반드시 어떤 사건-계열 내에 자리잡음으로써만 의미로 화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로서 고립되어서는 의미가 없다.”¹⁷⁾

사건은 내재적으로 통합적이며, 본질적으로 우발적이므로 다양한 해석에 열려 있고, 그 해석은 맥락을 요구한다. 사건을 탐구하면 문제와 질문을 발견하게 되고, 이후 프로젝트 등으로 연결하기 쉽다. 이러한 생각은 학교교육이 실제세계의 맥락을 삭제한 채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지식 중심으로 강력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아래의 생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초등 고학년부터 진학계 고교에서는 많은 학습 분량을 어느 정도 추상적인, 탈맥락적인, 생활에서 벗어난 수준에서 빠르게 학습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는 인간의 기억력

17) 이정우(2011) 사건의 철학: 삶, 죽음, 운명. 그린비, pp.143-144

이 최고조로 발달하고 발휘되는 적기이고, 기억력은 25세를 전후로 점차 쇠퇴하는 편이며, 사회에서는 인간발달에 따라 다른 능력(상상력, 창의력, 종합력 등)을 길러줄 것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다른 능력이 최고조에 이르러 발휘된다.”

이런 생각이 교육과정을 지배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는 우리가 지난 몇십 동안 반복적으로 경험한 바 있다. 바로 학생들을 배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수학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12년 수학 올림피아드 1위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99% 학생은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자)’다. 수십 년간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수학을 강조했지만, 대부분 학생이 수학에 흥미를 잃은 채 고등학교 교문을 나서고 있다.”¹⁸⁾

사건(event)은 우발적, 맥락적, 찰라적이라는 점에서 영원하고 불변하며 보편적인 이론, 법칙, 본질 등의 이데아와 대척점에 있다. 근대학문은 기본적으로 분과적 지식, 이론, 법칙, 본질을 추구하면서 현실 세계와 멀어졌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점차 악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의 한계도, 환경문제의 속성에 기인한 것도 아니다. 결국 환경문제는 <현상적으로는> 자연과학적 연구대상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인간적, 사회적 구조 속에서 발생한다.”¹⁹⁾

사건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탐구하게 된다. 학습자들(사람)은 이 세계를 사물이 아니라 사건으로 경험하기 때문이다. 사건은 자기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므로 이후 사건의 전개과정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학교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성, 맥락성, 유연성, 자율성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과학수업에서는 과학을 역사적 관점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교양교육과정의 학생들은 - 과학전공이든 비전공이든 똑같이 - 과학을 지적, 사회적, 문화적 전통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과학수업을 받아야 한다. 과학 과목은 과학의 윤리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을 강조함으로써 과학의 이러한 관점을 다루어야 한다.”²⁰⁾

프로젝트는 문제 혹은 질문과 함께 시작된다. 학생들은 문제를 발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들은 사건탐구를 통해 문제 혹은 질문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교사에 의해 주어진 프로젝트가 아니라 스스로 찾아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1학기 동안 사건탐구와 프로젝트 학습을 연결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사건탐구 과정에서 교과를 분석범주로 활용할 수도 있고, K-SDGs 17개를 활용할 수도 있다.

18) 율유진(2014) 수학 포기자 99%인 교육현실, 매일경제, [사이언스플라자].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4/08/1066586/>. 2014. 8. 5.

19) 남상준, 김대성, 김두린, 이상복, 한세일(1999) 환경교육의 원리와 실제. 서울: 원미사.

20)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 (1989) Science for All Americans : Education for a Changing Future. p.24

5. 결론: ‘미래’ 수업블록 구상(안)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시대에 대응하고,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 혁신의 일환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새로운 교육과정 수업블록 구상안을 제시한다.

가. 명칭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수업블록의 명칭은 ‘지속가능한 미래(약칭 미래)’로 한다. 여기서 수업블록이라 칭하는 이유는 제안하고자 하는 수업의 유형이 교과목이나 범교과학습주제와 같이 기존의 교육과정 용어로 규정하기 어렵고, 적용하는 영역도 교과나 비교과 활동이라는 기존 범주에 귀속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며, 학교의 사정과 교사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규모와 형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모형이기 때문이다.

나. 성격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수업블록 ‘미래’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미래’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시대를 맞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기감으로 불안해하면서 자신들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해 달라는 미래세대의 요청을 반영하는 성격을 갖는다.

‘미래’는 실제 세계와 단절된 채 분절적이고 파편화된 교과중심, 학문중심, 이론중심, 지식중심의 기존 수업으로는 오늘날 인류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내재해 있는 복잡성, 불확실성, 역동성 등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과 실천력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적 성찰의 결과라는 성격을 갖는다.

‘미래’는 2022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서 도입해야 하는 바람직한 교육혁신의 방향을 미리 제시하는 성격을 갖는다. 이는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 보장, 고교-대학연계성의 강화, 학생부중합전형의 확대, 대학입학시험의 자격시험화 등과 연결되어 있다.

‘미래’는 교과도 아니고 범교과학습주제도 아니면서, 다수 교과의 교사들이 함께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탐구하는 사건이나 현상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범교과학습주제들과 SDGs17개 목표를 아우르면서, 공간적으로 학교 안에서의 교실수업과 학교 밖에서의 현장체험활동이 결합된 융합적이고 유연한 수업모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미래’는 교수학습방법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의 자유학년제 또는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진로선택) 과목과 연계하여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성격을 갖는다.

다. 목적과 목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수업블록 ‘미래’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미래’ 학습자가 지구생태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미래’는 학습자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삶의 가치관과 양식이 지속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구생태계의 수용능력 안에서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삶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의지와 역량을 갖도록 돕는다.

‘미래’는 학습자가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하고 좋은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력을 함양한다.

‘미래’는 학습자가 지구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연(생물과 비생물 포함) 및 타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생력을 기른다.

라. 내용체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수업블록 ‘미래’의 내용체계는 다음과 같다.

‘미래’수업에서 학생은 자신의 관심과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탐구할 사건 혹은 현상을 선택하고 탐구하며, 이 과정에서 문제와 질문을 발견하게 되므로 미리 결정된 내용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수업에서 학생은 탐구할 사건이나 현상을 선택할 때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이나 지역과 관련된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기후위거나 감염병, 환경난민과 인권과 같이 지구 전체적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보편성과 맥락성이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한다.

‘미래’수업에서 학생은 지구생태시민이라는 추구하는 인간상, 자립력과 공생력이라는 핵심역량,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범교과학습주제들과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결합된 사건 혹은 현상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탐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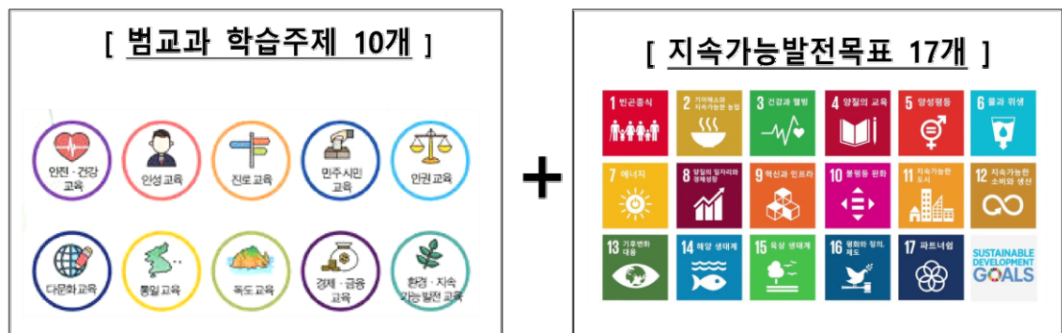


그림 6. 사건 선택 기준으로서 범교과학습주제와 SDGs17

마. 교수학습방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수업블록 ‘미래’의 교수학습방법은 다음과 같다.

‘미래’는 교수학습방법의 측면에서, 학생중심,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 실제세계의 사건과 현상중심, 간학문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핵심으로 한다.

‘미래’수업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세계에서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자연과학적, 사회과학적, 인문학적, 윤리철학적 관점에서 심층적이고 통합적으로 탐구하게 하며, 학생중심의 프로젝트 활동에 필수적인 문제와 질문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미래’ 수업은 감각을 활용한 관찰과 체험, 심도 있는 탐구와 성찰, 창의적인 창작과 표현, 실제 세계에의 참여와 실천을 아우르는 ‘배움의 수레바퀴’ 전 과정을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되 필요한 경우 2시간 이상 연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블록수업 형태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미래’ 수업을 중학교 자유학기제 혹은 자유학년제를 통해 진행할 경우에는 1학기에 최소 12주 이상으로 설정하고, 고등학교 고교학점제를 통해 진행할 경우에는 1학기를 기본으로 하되, 사건탐구와 프로젝트를 결합할 경우 2학기에 걸쳐 진행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한다.

2명 이상의 교사가 일종의 팀티칭 방식으로 ‘미래’ 수업을 진행할 때는 교사연구회 등을 통하여 학기 시작 전과 학기 중에 협의과정을 충실하게 거침으로써, 교수학습방법의 다양성, 자료준비의 충실성, 역할분담의 명확성, 일정관리의 체계성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모둠활동의 필요성도 높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원격수업 기반을 갖추고 활용한다.

바. 평가방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수업블록 ‘미래’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량적, 객관식 평가를 지양하고 학생들의 활동과정과 산출물을 바탕으로 교사가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교사는 평가과정에서 가급적 학생 자신과 동료 학생들의 평가를 함께 반영한다.

‘미래’ 수업에서 학생은 최대한 자신의 진로 혹은 관심과 관련된 사건이나 현상을 선택하도록 노력하며, 교사는 탐구, 협력, 발표 활동과정과 산출물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부에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함으로써 고교-대학연계 교육의 목표가 충실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미래’ 수업이 학생부종합전형과의 연결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평가의 내용은 입학사정관들에 의해 참조가 될 수 있도록 학업역량(전공적 합성), 발전가능성(잠재성), 인성(협동심, 리더십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수업이 진행되는 전 과정에 걸쳐 수행평가 등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과정을 온라인 클래스 등에 기록으로 남도록 하고,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성찰과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표 4> 미래 수업블록의 디자인 로직

기후위기 시대	기후변화로 인해 생명지원체계(life supporting system)로서의 지구생태계가 교란되면서 인류의 안전과 인간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된 시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면 상승, 홍수, 가뭄, 산불, 태풍, 산사태, 감염병 등 다양한 양상 - 생명지원체계가 교란되면서 사회체계의 붕괴(환경난민, 분쟁, 폭동 등) 증가 - 시스템 붕괴 속도가 너무 빠르고, 무너진 시스템을 복원할 가능성 희박 - 미래에 대해 서로 다른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아이들: 기후변화 vs 대학입시
산업문명의 붕괴	더 많은 소유와 소비를 좋은 삶이라고 믿고, 인간과 자연을 상품화하면서, 시장의 자기조절능력을 통해 사회체계를 관리하는 화폐(자본)중심문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무한욕망을 인정하고, 인간과 자연을 도구화, 상품화 - 상위 10%의 부자들이 전체 온실가스의 50%를, 하위 50%가 10%를 배출 -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은 하위 50%가 먼저 더 치명적으로 받게 됨(부정의)
생태문명으로 전환	생태(탄소)발자국 1이하의 삶의 양식이 보편화되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문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수준: 지구의 수용능력 범위 안에서 설계, 운영, 관리되는 사회체계 - 개인적 수준: 모든 인류가 나처럼 살아도 지구의 수용능력을 넘지 않는 삶 - 더 많은 소유와 소비를 좋은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문명
환경학습권 보장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적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한 학습과정에 참여할 권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권 + 학습권 /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양질의 환경학습을 받을 권리 - 브라질: 헌법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 / 교육기본법에 포함? - 미래세대: 기후위기로 인해 생물학적 수명대로 살지 못할 위협에 대비할 권리
교육의 생태적 전환	사회체계의 생태적 전환에 필요한 능력과 의지를 길러주는 교육으로의 전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교육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이데올로기를 확대재생산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동 - 생태적 전환의 키워드: 지속가능성, 통합적 접근, 교육자치, 학생관의 변화
추구하는 인간상	지구생태시민 / 지속가능성이 무너진 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새로운 인간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를 포함하여 지속불가능에 처한 생태적, 사회(정치경제)적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전환 과정에 참여하는 민주 시민 - 마을과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가 진정한 지구시민으로 가는 출발점
학생관의 변화	돌봄과 통제의 대상인 근대적 아동관에서 자율적인 생태시민의 아동관으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튼베리의 연설: How dare you?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새로운 관계 설정 필요 - 학생들의 사회 참여: 학교 안에서의 자유로운 모의선거 등 - 학생인권조례에 기후위기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포함
핵심역량 추가	경쟁력이 아니라 자립력과 공생력을 길러주는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가 상실된 상황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역량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 기존의 6가지 역량에 생태적 역량(감수성, 합리성, 상상력) 추가 - OECD2030 + ESD2030 / 역량이 기능으로 전략해서 내용에 종속되지 않도록
교육과정 편제 개정	지구생태시민을 지향하면서 자립력과 공생력을 길러주는 교육과정으로 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 중심 과목의 시간 축소 및 범교과학습을 위한 시간 확보(주당 4~6시간) - 환경과목 또는 환경수업 시간 필수화(의무화?) 필요한지? - 미래를 위한 금요일 프로젝트: 사건을 중심으로 체험, 탐구 + 프로젝트 - 다양한 전공 교사들이 팀티칭으로 참여 / 교사의 시수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지역의 전통지식을 중요 내용으로 포함: 인도의 새교육과정 '인도의 지식'

참고문헌

- 국가환경교육센터(2020) 고등학생 대상 기후변화 및 환경교육에 관한 인식 조사.
- 권오현, 박은지, 안성환, 유지연, 진동섭(2017) 진로·진학과 연계한 고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 권일남, 김태균, 전명순, 김정률(2018) 자기주도적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 여성가족부.
- 김미숙·이수정·홍창남·강상진 (2007). 고교-대학 연계를 통한 대입전형연구(IV): 대입준비 과정에서의 학교의존도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용(2020) 한국과 일본의 범교과 학습 관련 진흥 법령 및 지원 체제 비교, 교육법학연구, 32(1), 55-81.
- 남상준, 김대성, 김두련, 이상복, 한세일(1999) 환경교육의 원리와 실제. 서울: 원미사.
- 리차드 루브(2016) 지금 우리는 자연으로 간다: 자연 결핍 장애를 극복하고 삶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서울: 목수책방.
- 마쓰모토 미와오 지음, 김경원 옮김(2018) 지의 실패 - 과학기술의 발전은 왜 재앙을 막지 못하는가?, 서울: 이상북스.
- 박경호, 김지수, 김창환, 남궁지영, 백승주, 양희준, 김성식, 김위정, 하봉운, 한금영(2017) 교육격차 실태 종합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왕관은, 박창은(2015) 범 교과 학습주제의 한계 논의, 통합교육과정연구, 9(2), 53-70.
- 원유진(2014) 수학 포기자 99%인 교육현실, 매일경제, [사이언스플라자].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4/08/1066586/>. 2014. 8. 5.
- 윤종혁, 김은영, 최수진, 김경자, 황규호(2016). OECD 교육 2030: 미래교육과 역량을 위한 현황분석과 향후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이근호, 이미경, 서지영, 변희현, 김기철, 유창완, 이주연, 김종윤, 윤기준(2017) OECD Education 2030 교육과정 조사에 따른 역량중심 교육과정 비교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미숙(2009) 범교과 학습에 대한 교육 전문가 및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분석, 한국교육 (37)3, 183-202.
- 이재영(2017) 사건중심 환경탐구, 공주대학교출판부.
- 이재영, 양병찬, 정철, 김기대, 김대회, 이주희, 지옥정, 권혜선, 안재정, 송헌석, 최병조, 서현숙(2017) 국가 차원의 환경교육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사)한국환경교육학회.
- 이재영(2019)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 교육의 방향, 월간 교육정책포럼 315호.
- 이재영(2020) 튼베리와 초등학생의 호소? 그것은 명령이다, 한겨레신문 [왜냐면] 2020년 2월 12일,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28007.html#csidx1282676b6ab279eb63ad9e5c10e7a44>.
- 이정우(2011) 사건의 철학: 삶, 죽음, 운명. 그린비, 143-144.
- 이진경(2916) 파격의 고전, 서울: 글항아리.
- 장석준(2011) 신자유주의의 탄생: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 서울: 책세상.
- 제프 콜빈(2016) 인간은 과소평가되었다, 한스미디어.
- 조상연(2015) 국가교육과정 체제에서의 학교교과 생성에 대한 논의,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상연(2020) 우리나라 범교과 학습의 개선 방향 논의, 인격교육 14(1), 91-117.
- 최광락, 강인환, 배민정, 왕범식(2016) 학교급별 범교과 학습 교육과정 운영의 발전적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 서울교육정책연구소.
- 최수진, 이재덕, 김은영, 김혜진, 백남진, 김정민, 박주현(2017)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역량 개념틀 타당성 분석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칼 폴라니(2009)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서울: 길.
- 홍후조, 김대영, 조호제, 민부자. 하화주(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과 교과 연계 방안 연구: 역량과 범교과 학습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부.
- 환경보건시민센터(2020) 코로나19 사태 관련 긴급 국민의식조사 결과.
-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2015)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 결과.
-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 (1989) Science for All Americans : Education for a Changing Future, p.24
- Fiona Harvey and Jillian Ambrose (2019) “Pope Francis declares’ climate emergency’ a nd urges action,” Guardian, June 14, 2019,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9/jun/14/pope-francis-declares-climate-emergencyand-urges-action>.
- Global Footprint Network (2020) Sustainable Development : Sustainable development is successful only when it improves people’s well-being without degrading the environment. <https://www.footprintnetwork.org/our-work/sustainable-development/> 2020. 8.
- GlobeScan Radar (2017) Public Opinion Survey. GlobeScan. <https://globescan.com/category/globescan-radar/>,
- Human Right Council (2019) Climate change and poverty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extreme poverty and human rights,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 Joseph Stiglitz (2019) “The climate crisis is our third world war. It needs a bold response,” Guardian, June 4, 2019,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9/jun/04/climate-change-world-war-iii-green-new-deal>.
- Leiserowitz, A., Maibach, E., Roser-Renouf, C., Rosenthal, S., Cutler, M., & Kotcher, J. (2018) Climate change in the American mind, Yale University and George Mason University. New Haven, CT: Yale Program on Climate Change Communication.
- O’ Brien, C. (2016) Education for Sustainable Happiness and Wellbeing, Routledge.
- OECD (2018)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 The Future We Want. www.oecd.org/education/2030/
- TreeHugger (2017) Children Spend Less Time Outside Than Prison Inmates, <https://www.treehugger.com/children-spend-less-time-outside-prison-inmates-4857353> Updated October 11, 2017.
- William Nordhaus (2019) “Climate Change : The Ultimate Challenge for Economics,” American Economic Review, 109(6): 1991-2014.

IV. 토론문

토론문1

공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김자영 교수

학교 양성평등교육의 현황 및 과제

김자영(공주교육대학교 조교수)

○ 학교 양성평등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법 앞에 평등하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양성평등의 가치를 지향함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양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학교교육, 연수교육 등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교육에서는 ‘양성 중 어느 특정 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고,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현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교육’을 양성평등교육으로 정의하고(교육부, 1999), 제7차 교육과정부터 현재까지 양성평등교육을 교육과정에 내용으로 일부 반영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남녀 간의 대립과 갈등의 심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학교 현장에서 역시 남녀 간의 혐오, 성차별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학교에서의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요구는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초·중등에서부터의 체계적인 양성평등교육을 통해 양성평등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학교 양성평등교육의 현황

현재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 양성평등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 양성평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비해 관련 내용이 상당히 빈약하고 제한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교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초등 교육과정에서는 양성평등과 직접적

으로 관련된 성취기준을 찾아보기 어렵다. 성취기준의 내용 상 ‘옛날과 오늘날의 혼인 풍습과 가족 구성을 비교하고, 시대별 가족의 모습과 가족 구성원의 역할 변화를 탐색한다.’ 와 같이 양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부분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결국, 초등 교과 성취기준에서는 인권과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차별, 가족 내 역할 분담 등 양성평등 요소와 연계할 수 있는 영역에 교원의 개별적인 재량에 따라 적절히 양성평등 교육 요소를 통합하여 다룰 수밖에 없다.

중등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과와 기술·가정 교과에서 양성평등이 성취기준에 직접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양성평등 관련 내용의 범주와 분량이 제한적이다. 양성평등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내용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교과로까지 확장한다면 사회(역사 포함), 도덕, 기술·가정, 체육, 보건 교과 등이 양성평등교육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내용의 체계성이 떨어지고 양성평등교육의 내용 중 일부만 제한적으로 다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범교과 학습 주제에서의 양성평등교육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추가되었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도 포함되었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의 수를 10개로 줄이면서 삭제되었다. 양성평등의 내용이 일부 범교과 학습 주제 속에서 다루어지고는 있지만, 독립된 범교과 학습 주제로 존속하지 못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양적·질적으로 축소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에서 발간한 「2015 개정교육과정 범교과 학습주제 교수학습자료」를 살펴보면, 10개의 범교과 학습 주제 중 안전·건강교육과 인권교육에 양성평등교육의 관점이 일부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안전·건강교육에서는 하위 주제 중 하나로 성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 성교육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양성평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다루고 있는 교수학습자료가 제한적이다. 인권교육에서는 하위 주제 중 하나로 양성평등을 다루고 있고, 유엔 안보리 결의(1325호)에서도 양성평등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양성평등을 다룰 때 일·가정 양립 문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양성평등교육의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일부만 제한적으로 다룬다는 한계를 가진다.

○ 학교 양성평등교육의 내실화 방안 제안

학교 양성평등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과정 구

성 및 운영의 기본 원리로 ‘양성평등의 가치 실현’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의 가치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 학교급을 포괄하는 양성평등교육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양성평등교육의 방향과 기초 틀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총체적으로 분석,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범교과 학습에서는 현재 일부 내용 요소로만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양성평등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전처럼 양성평등교육을 별도의 범교과 학습 주제로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별도로 독립시키기 어렵다면 양성평등의 가치와 내용을 전 범교과 학습 주제로 확장 적용하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 안전·건강교육, 인권교육과 같이 기존에 양성평등교육의 내용을 포함한 주제 뿐 아니라 인성교육, 진로교육, 다문화교육 등 다른 범교과 학습 주제에도 양성평등의 가치와 내용이 포함되도록 확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진로교육에서 성별에 국한되지 않고 진로를 탐색, 선택하도록 하는 것, 인성교육에서 다른 성별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내용으로 구체화하여 포함하고 관련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교과 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의 내용을 강화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양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을 확충하고, 양성평등교육이 도덕, 기술·가정, 사회 등 특정 교과가 아닌 전 교과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성평등교육을 여러 교과와 연계하여 실행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양성평등교육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교육의 실행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학교급별, 교과별, 주제별로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할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하다. 교사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의 교육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접근이 필요하다.

2015년 UN 총회에서는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중 하나로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채택한 바 있다. 이는 양성평등이 인권의 문제일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전제조건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교 양성평등교

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교육부(1999). 양성평등 학교문화 선생님이 만듭니다. 학교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연수자료. 교육부.

교육부(2018). 범교과 학습주제와 교과별 교육과정 내용요소 연결-맵 개발 연구. 교육부.

교육부(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 주제 교수학습자료: 범교과 학습 주제와 교과 교육과정 연결 맵. 교육부.

최윤정·박성정·장희영·김효경·최윤정(2019). 초중등 성평등교육의 요구 현실과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한민국 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9. 12. 19.] [법률 제15985호, 2018. 12. 18., 일부개정]

UN 홈페이지(지속가능개발목표 5. 성평등).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gender-equality/>
(2020.11.10. 검색)

토론문2

부산대학교 윤리교육과
김현수 교수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 실현 방안

김현수(부산대학교 교직부장 / 윤리교육과 조교수)

환경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우리의 의사결정에 대해 반성하기 위하여 한 걸음 물러나는 과정을 요청하는 활동이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답을 찾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한 차원 더 높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맥락에서 볼 때 범지구적 환경현안에 대한 효율적 해결과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이룩하기 위해 통합적 접근과 교육을 시도하고자 하는 노력과 관련하여 이를 범교과 학습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전개하고자 하는 이번 포럼의 핵심 논의는 결국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대하여 학교의 책무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포럼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측면에서의 환경교육을 인권교육, 안전교육, 평화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의 관련 범교과 학습 주제와 더불어 국가 교육과정 측면에서 학교 환경교육의 미래과제와 범교과 통합 블럭의 신설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제시된 발표의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환경교육을 학교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매우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발표 내용의 전반적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발표의 내용과 관련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주제에 관하여 의견을 드리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첫째, 여타의 범교과 학습주제와, 그들과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환경·지속가능발전의 상호관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현재의 발표에서 제시된 인권, 안전, 평화통일, 민주시민 등의 주제는 지난 교육과정에 대비하여 내용적정화가 이루어진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역시 범교과 학습주제 중 하나로 설정되어 있는 주제들이다. 물론 이 중에는 해당 범교과 학습주제의 내용으로서 환경·지속가능발전의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주제도 있지만, 특정 범교과 학습주제가 환경·지속가능발전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포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주제들 또한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편으로 현재 10개(12개)로 설정되어 있는

범교과 학습주제들 중 여타의 주제들이 환경·지속가능발전의 내용을 이미 다루고 있거나 충실히 다루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환경·지속가능발전은 개별적 범교과 학습주제로 다루기보다는 다른 범교과 학습주제의 내용에 포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가 된다. 다른 한 편으로 환경·지속가능발전이 하나의 상위 개념이 되어 나머지 범교과 학습주제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른 주제들의 하위 내용들이 배제되거나 충돌을 일으키면서 환경·지속가능발전의 위상이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범교과 학습주제로서 환경·지속가능한 발전의 독특하고 고유한 정체성을 밝히고 강조하는 것이 어떠한지 의견을 드린다.

둘째, 환경·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인식의 확산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연계 체제는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가? 현재의 범교과 학습주제로서 환경·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그 설정 과정에서 일정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상호 소통과 협력의 확대, 그리고 인식의 개선과 공감대의 확산이 여전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공감대의 확산은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 주체간의 협의가 활성화됨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전개되고 있는 공교육 혁신의 흐름과 관련하여 서울형 혁신학교, 부산 다행복학교 등 혁신학교의 교육활동에 환경·지속가능발전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어떠한지 의견을 드린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서 교사다모임에서 환경·지속가능발전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수가 이루어지게 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 지원하는 방법, 지역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혁신교육지구 및 마을 교육공동체와 연계하여 환경·지속가능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의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우리의 상황을 반영한 가치와 철학을 바탕으로 한 환경·지속가능발전의 전망과 설계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현재 환경·지속가능발전으로 제시되고 있는 범교과 학습주제는 하위 내용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현재 이 내용의 주요 구성요소는 17개의 지속가능목표(UN-SDGs)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목표는 상당히 포괄적인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동의 가능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의 맥락에서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로 122개 세부목표 및 214개 지표로 설정되어 소관 부처를 지정하여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와 지표는 한 편으로는

너무 광범위하여 추상적이고, 다른 한 편으로는 너무 세분화되어 학교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존재한다. 환경·지속가능발전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내용 중에서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수준에서 성취기준으로 설정할 것인가 등에 관해서 국가교육과정포럼과 같은 논의의 모델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상을 반영한 수업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탐색활동 등의 창의적 체험 시간에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 드린다.

토론문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서헌주 센터장

토론문

서헌주(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범교과학습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작업안전, 응급처치,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예방교육 등 범교과 시수를 당초 51시간에서 33시간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다. 특히, 소방안전교육,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인터넷 중독교육 등은 안전교육과 통합해 운영하고, 인성교육은 교과와 통합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자치 정책협의회는 지난 8월말 범교과 학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령 등에 의한 의무 교육 관련 교육과정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육과정심의회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부 소관 법령부터 정비한 뒤 이후 타 부처 소관 법령을 정비 계획(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 국가와 지방, 학교가 연계하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체계 마련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렇게 범교과학습이 현안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가환경교육 센터가 주최하는 범교과학습에 관한 포럼은 범교과학습 내 인권교육, 통일교육, 민주 시민교육, 안전교육, 그리고 환경교육 등 5개 분야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은 물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유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선, 범교과학습에 관해서 간략히 정리하면, “사회 변화에 따라 제기되는 국가 사회적 요구와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학습자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으로, 단일 교과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 교과에 걸쳐 교수되어야 할 것”으로 개념 규정되며, 2009 교육과정에서 39개로 시작해서 2015 교육과정에서는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10개로 축소되었으며 현재는 청렴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포함하여 12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범교과학습을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관점, 교과 교육과의 관계성에서 보는 관점, 범교과 학습을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기초하여 교육활동의 한 영역으로 인정하는 관점으로 구분된다.

한편, 범교과학습과 관련해서 몇 차례 개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양한 쟁점과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먼저, 국가 교육과정에 새로운 범교과 학습 내용이 반영되는 과정은 ‘위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 어떤 내용을 범교과 학습 내용으로 국가 교육과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의 기저에는 향후 그것이 교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사회적 욕구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는 범교과 학습과 교과 교육의 관계성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변화되었지만, 많은 교과 교육 전문가나 교사들은 범교과 학습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교과 고유의 특성과는 이질적인 내용이 부과되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셋째,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권한 및 전문성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범교과 학습 내용을 관련 교과 및 교과 외 활동 등의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지침을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학교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일정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과정 이외의 학습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요구를 적용하려면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일부를 변경하여 운영하는 파행적인 교육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관에서는 이수시기, 횟수, 시간 등을 명시하여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내용과 운영시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실제 운영 가능한가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일방적으로 요구한 셈이다. 그 요구를 법률로써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있고 모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 한다는 주장이 있다.¹⁾

패널 발표에서도 인용된 바 있지만, 범교과학습을 둘러싼 논쟁과 문제의 본질은 “외국의 범교육과정은 교과 교육과정을 가로지르는 것으로, 교과 교육과정 확정 이전에 사전 조치적이며, 내용적 성격을 갖는 데 비하여, 한국의 범교과 학습은 기존 교과 교육과정 존재를 인정된 위에, 사후 조치적이며, 방법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 이 사실은 외국의 범교육과정이 교육과정 안으로 포섭되어 있는데 비하여, 한국의 범교과 학습은 상당 부분 국가 교육과정 밖에 있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는 한 연구자의 지적에서 잘 드러난다고 판단된다.²⁾

이번 포럼 패널의 범교과학습 분야별 발표는 이러한 쟁점과 문제점을 고려하는 가운데 향후 범교과학습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에서 개선이 모색되고,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능한 답변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패널의 발표내용을 토대로 하여 범교과학습 주제 분야별 개선방안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인권교육)** ①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과목 중심 교과 체계에서 주제 중심 교과로의 전환, ②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③지속가능발전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 **(민주시민교육)** ①범교과 학습주제에 있어서 교육 목적,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에 있어서 범교과 학습주제의 가치 및 의미 명료화, ②범교과 학습주제의 통합, ③단위 학교(교사)의 주제(교육내용) 선정의 자율성 확대, ④시민단체, 유관 부처 등 협업과 자료 보급 강화
- **(통일교육)** ①통일교육의 내용으로써 평화통일교육의 포함, ②범교과학습 주제 학습해설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제시, ③통일교육과 안보 문제를 고려하여 인간안보와 함께 포괄적 방향의 지향

1)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2016), “학교급별 범교과 학습 교육과정 운영의 발전적 방안 연구.”

2) 김용(2020), “한국과 일본의 범교과학습 관련 진흥 법령 및 지원체제 비교”, 『교육법학연구』, 32:1, 55-81쪽.

- **(안전교육)** ①안전·보건·웰빙 통합 학교안전교육의 실시와 함께 현행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중심의 안전교육(safety education)을 참여 중심의 위험교육(risk education)으로 확대한 학교안전교육 체계와 방법의 개선 추진, ②일반교과보다 관련성이 큰 범교과학습 주제와의 통합(연계)교육 추진, ③위험감수성(risk awareness)과 위험통제(risk control) 역량 개발을 위한 학생 참여 중심의 위험교육(risk education)에 기반을 둔 통합 학교안전교육 실시
- **(환경교육)** ①인간상을 환경소양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핵심역량으로 생태 감수성을 제안하고, ②범교과학습 주제의 축소 및 내실화, 즉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을 필수로 포함 ③환경·지속가능발전의 내용과 범위의 재규정 ④관련 지침 및 해설서 제공, ⑤단일교과가 아닌 여러 교과에 핵심 개념 중심의 통합적 접근, ⑥학교 전체 단위 통합적 접근 모색

이상의 범교과학습 분야별 개선방안에서 주목되는 점을 지적하면, 먼저, 각 영역이 포괄하는 범위의 확대와 심화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인권교육은 지속가능발전, 통일교육은 인간안보, 안전교육은 안전·보건·웰빙의 통합 학교안전교육은 물론 참여 중심의 위험교육으로 확대된 학교안전교육, 환경교육은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을 제안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존의 교과목 중심의 교육이 범교과학습 주제와의 통합적, 연계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범교과학습 관련 다양한 교육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선방향과 대안적 접근방법은 기존 범교과 학습과 관련하여 제기되어왔던 주요 쟁점 및 문제제기를 일부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우리 사회에서 국가 교육과정은 모든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핵심적 사항을 중심으로 간결화하고 지역 및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온 데 반해, 범교과 학습 내용은 과다하게 상세화 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제기된 다른 쟁점과 문제점, 더 나아가 그러한 쟁점과 문제점을 파생시키는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만족스러운 답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사례나 학교 현장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향후 교육과정 개정과정에서 범교과학습 주제를 본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방향에서 또한 그럴 경우 범교과학습 주제를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한 패널 발표자들의 의견을 부탁 드린다.

한편,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기후변화, 용수 부족, 식량문제, 자원고갈 등 다양하고 상호 연계된, 복잡성을 특징으로 범지구적 이슈들에 직면하여 있다. 즉, 20세기 말부터 범지구적 이슈가 대두되면서 기존의 초강대국 간의 군사 경쟁, 국가 주권의 보호,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확보에 초점을 두는 협의적 의미의 안보개념에서 보다 폭넓은 범위의 외부적 위협 요소들과 국제

분쟁의 잠재적 근원들, 예컨대, 환경악화, 자원 부족, 에너지 부족 등과 국가 내부 문제와 국가 간 관계에서 오는 개인 및 공동체의 생명과 생계 수단에 대한 인간안보의 위협들, 예컨대 경제적 빈곤(식량문제)이나 생태계 악화, 차별(민족, 종교, 성별 등) 및 인권 탄압 등을 포함하는 광의적 의미의 인간안보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확장된 안보 개념은 국가와 그 안의 구성원들이 당면하고 있는 연계된 안보문제의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지역적, 세계적 수준의 협력과 국가 및 비국가행위자들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패널발표에서 지적된 바 있지만, 예컨대,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시각은 기후위기를 단순히 환경 차원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권, 정의, 평화 등과 연계된, 확장된, 통합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방금 지적한 바 있는 확장된 안보 개념과도 상당부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향후 범교과학습의 개선 방향 모색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범교과학습 주제들이야말로 자립력과 공생력을 위해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주제라는 인식은 거의 전무하였고, 범교과 학습주제를 개별적인 가치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취급함으로써 그것들이 전체로서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추구하는 인간상과 사회상의 수준에서 논의하지 않음으로써 교육과정의 총론 수준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제안하지 못했다” 는 주장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범교과학습 주제의 개선과 관련해서 방향성을 시사해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을 기본적으로 취하면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범교과학습 주제의 미래적 관점에서 제안된 미래 수업 블록 구상은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비전)** 생태문명, 즉 ‘모든 인류가 나처럼 살아도 지구의 생태적 수용 능력이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삶의 양식이 보편화된 문명’ 시대의 자립력과 공생력을 갖춘 지구 생태시민의 양성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지속 가능하고 좋은 삶을 지향’)
- **(성격)** 다수 교과와 교사들이 함께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탐구하는 사건이나 현상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범교과 학습주제들과 SDGs 17개 목표를 아우르면서, 공간적으로 학교 안에서의 교실수업과 학교 밖에서의 현장체험활동이 결합된 융합적이고 유연한 수업모형
- **(목적 및 목표)** 학습자가 지구인으로서 기후위기를 포함하여 지속 불가능에 처한 인류의 생태적, 사회(정치경제)적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전환과정에 참여하는 민주시민, 즉 지구생태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조력
- **(내용체계)** 자신이 사는 마을이나 지역과 관련된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기후위거나 감염병, 환경난민과 인권과 같이 지구 전체적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보편성과

맥락성이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미래’ 수업에서 학생은 지구 생태시민이라는 추구하는 인간상, 자립력과 공생력이라는 핵심역량,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범교과학습 주제들과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결합된 사건 혹은 현상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탐구)

- **(교수·학습방법)** 학생 중심,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 실제세계의 사건과 현상 중심, 간학문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 **(평가방법)** 정량적, 객관식 평가를 지양하고 학생들의 활동과정과 산출물을 바탕으로 교사가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교사는 평가과정에서 가급적 학생 자신과 동료 학생들의 평가를 함께 반영

미래 수업 블럭 구상은 상당히 의미 있는 향후 범교과학습의 접근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발표자께서 지적하였듯이 “상당한 수준의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능력” 이 요구하는 접근방식이라고 하겠다. 참고로, 미래 수업블럭 구상은 다문화 교육과정 개혁과 관련해서 제임스 뱅스(James A. Banks) 교수³⁾가 제안한 기여적 접근(contribution),⁴⁾ 부가적 접근(additive),⁵⁾ 개혁적 접근(transformative)⁶⁾ 및 사회실천적 접근(social action)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인 “학생들이 중요한 사회문제들과 관련하여 결정을 내리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취하는 수준” 인 사회실천적 접근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이러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현실에서 어느 정도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발표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접근법에 관한 인식, 태도 등이 아직 다소 미흡한 상황에서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과 부담이 대두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본교육과정과 범교과학습 간의 상호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동 방식의 범교과학습 주제의 학습으로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능력의 육성을 통한 본교육과정의 내실화 등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겠다. 이와 관련해서, 발표자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미래 수업 블럭과 관련해서 초등학교와 중·고교의 차별적 적용을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남는 과제이다. 초등학교 수준부터 기초적인 역량을 키워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3) James A. Banks(2008), 『다문화교육 입문』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69-72쪽.

4) 다문화 교육과정 개혁의 1단계 접근방식으로 소수집단이 주류사회에 기여한 점을 부각시켜서 그들의 자긍심을 키움.

5) 다문화 교육과정 개혁의 2단계 접근방식으로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구조, 목표, 특성 등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소수집단과 관련된 내용, 개념, 주제, 관점을 교육과정에 추가하는 것. 즉, 기존 교육과정에 의견하여 교육내용을 선택하는 것임.

6)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목표, 구조, 관점의 변화가 수반되며, 학생들이 다양한 민족 및 문화집단의 관점에서 개념, 이슈, 사건, 그리고 주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함.

토론문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연구실
이승미 실장

토론문

이승미(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들어가며

한 교과는 세상을 보고 설명하는 방법에 있어서 타 교과와 차별성을 가진다. 즉, 교과는 다른 교과에서 다루지 않는 방법을 해당 교과 고유의 교육내용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타 교과와 차별화된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본래적으로 어느 하나의 방법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방법으로 교과 간의 통합 및 융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정 교과에 국한되지 않는 국가 사회적 이슈들을 범교과학습 주제로 명명하여 강조하여 왔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에 국가·사회 및 세계의 빠른 변화와 함께 범교과학습 주제의 수가 급증하고 관련 법규의 제·개정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다. 이때 ‘부담’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의 교과 및 교과외 활동에서 부과하는 학습량과 시수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범교과학습 주제의 수와 시수가 부과되는 것에 대한 부담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박창언·김경자, 2014). 이에 교육부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에서 기존의 49개까지 증가하였던 범교과학습 주제를 10개로 통합하여 제시하는 한편, 10개의 범교과학습 주제가 반영된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도 및 학교에 보급하고 있다. 즉, 범교과학습 주제를 학교 교육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연장선에서 특히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관점에서 범교과 통합(연계) 교육의 방향을 다루는 본 포럼이 교육과정 연구자의 관점에서는 범교과학습 주제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반갑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교과는 타 교과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타 교과의 관점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어떠한 측면에서 이와 같은 교과의 특성은 각 교과 고유의 관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타 교과와의 소통 가능성을 배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되어야 한다. 범교과학습 주제는 이와 같은 배타성을 넘어서서 현재와 미래의 주요 이슈들을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더 나아가 범교과학습 주제는 교과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체되어 있다고 비판되는 교과의 성장과 발전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외부 자극이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범교과학습 주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가치에 비하여 평가 절하되어 온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섯 분이 작성하신 발제문을 읽으면서 본 토론자는 본 포럼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첫째, 범교과학습 주제 강화의 필요성이며, 둘째, 첫째에 근거한 범교과학습 주제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토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범교과학습 주제 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여섯 분의 발제문에서는 범교과학습 주제가 앞으로 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 첫째, 범교과학습 주제와 관련된 국가 사회적 문제의 발생 비율 증가
- 둘째, 범교과학습 주제에 대한 학생의 필요성(중요성) 인식 저하 또는 정체
- 셋째, 범교과학습 주제에 대한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반영 정도가 저조함

이를 종합하여 보면, “범교과학습 주제는 적절히 잘 지도되지 않을 경우 관련된 국가 사회적 문제의 발생 비율 증가한다. 그런데 범교과학습 주제에 대해 현재의 학생들은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근본적으로 현재의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에서 범교과학습 주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논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현재의 상황을 매우 적절하게 설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토론자는 다음의 두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공교육은 국가 사회가 가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이 아니다. 학생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12년간의 공교육은 긴 기간이기도 하지만 이제 유아를 벗어난 아이가 청년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하여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매우 바쁜 기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기간에 우리가 설계해야 하는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교과 및 교과의 활동 뿐 아니라) 범교과학습 주제는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삶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가치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국가 사회는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범교과학습 주제가 해당 현재 국가 사회에서 또는 현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미래 예측에서 강조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학생들에게 강조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적절하기만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토론자가 초·중·고 12년을 다니는 동안 학교 교육 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도 그토록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주산이 이제는 그 유용성을 상당 부분 잃은 것처럼 학생들은 지금 강조되고 있는 범교과학습 주제가 아닌 다른 범교과학습 주제가 강조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범교과학습 주제는 국가 사회라는 관점에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관점으로 그 필요성(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관점을 변화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더하기만 할 수 없으며 더한 만큼 빼기도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3년간 7개 교과군(11개 과목) 및 선택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3,366시간의 총 수업 시간 수를 최소 수업 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시간은 학생들이 거의 매일 6-7교시의 수업을 감당하는 시수이다. 만일 국가 사회적 교육의 필요성이라는 관점만으로 교육 내용을 더 추가해야 한다면 학생들은 더 많은 수업 시수를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공교육에서 범교과학습 주제 관련 교과 신설 및 관련 필수 시수 배당을 고민한다면, 중학교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뺄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범교과학습 주제에 대한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반영 정도가 저조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로 반영되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각 교과는 각 교과 고유의 교육 내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범교과학습 주제를 주요 교육 내용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그렇게 해야 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반영 정도가 저조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더욱이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이미 관련 주제를 범교과학습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총론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도 할 수 있다(참고로 교과와 관련하여서도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교과 명칭을 제시하고 관련 시간 배당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범교과학습 주제 자체를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총론에서 범교과학습 주제 자체를 어떻게 더 적합하게 조직하여 기존 교과 교육 내용과의 중복성 논의에서 벗어나 그 존재감을 적절히 잘 드러내는 한편 교과 및 교과의 교육과정에서 수용 가능성을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토론자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범교과학습 주제의 수를 늘려나가기 보다는 관련 주제 간에 통합·연계하고자 하는 본 포럼의 발제문의 방향에 찬성한다.

3. 범교과학습 주제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여섯 분의 발제문에서는 범교과학습 주제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 방향으로 크게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교육 방향으로서의 범교과학습 주제의 강화: 인간상과 핵심역량으로 추가
둘째, 범교과학습 주제 관련 교과 신설 및 더 나아가 주제 중심 교과로의
교과 체제 전환

셋째, 범교과학습 주제 관련 교과 외 활동의 개설 및 관련 필수 시수 배당
위의 세 가지 방안은 각각의 범교과학습 주제의 관점과 범교과 연계 통합
프로젝트 구성하는 관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가능하다.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총론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은 각론으로 일컬어지는
교과 및 교과의 활동의 전체 방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정 교과나 특정 교과
의 활동에서 다루어지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을 거론하지 않아 왔다. 그 연장선에서
인간상과 핵심역량에 범교과학습 주제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총론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
역량에 범교과학습 주제를 명시한다면 이와 동등하게 각 교과와 교과의 활동의
교육 방향도 교육과정 총론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에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총론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에 교과, 교과
외 활동, 범교과학습 주제에서 각각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을 모두 진술하여
나열한다면 교육과정 총론이 교육과정 총론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는 역할의
의의를 살리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교육과정 총론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은 공교육이 미래의 방향을
향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재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에 교과, 교과외 활동, 범교과학습 주제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범교과학습 주제는 cross-curricular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즉 특정 교과에 얽매이지 않고 관련 되는 여러 교과들에 걸쳐 연계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 마련된 것이 범교과학습 주제이다. 그런데 범교과학습 주제가 교과가 된다면, 교과가 가지는 안정성(예를 들어 시수의 확보, 성취기준 및 교과서의 개발, 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신설 또는 증대와 전공 교사의 양성 등)을 갖게 되는 대신 범교과학습 주제는 범교과학습 주제가 교과에 대하여 비판하는 다양한 한계를 그대로 물려받게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범교과학습 주제 간에 그리고 범교과학습 주제와 교과 간에 서로 소통되지 않음, 시대적 변화에 충분히 빠르게 변화하지 않음, 범교과 학습 주제를 가르치는 교사 외에는 해당 범교과 학습 주제에 대하여 관심갖지 않음 등. 따라서 범교과학습 주제가 교과가 되면 범교과학습 주제는 더 이상 범교과학습 주제로서의 장점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범교과학습 주제는 앞으로 새로운 교과가 되기 위한 존재인가, 아니면 범교과학습 주제는 그 자체로 공교육의 주요한 영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교과학습 주제가 다루어져야 할 관련 교과에서 적절히 다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교과에서 범교과학습 주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에서는 시대적 요구에 적합하게 발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의 하나로서 범교과학습 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교과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에는 교과 외 활동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다. 그런데 창의적 체험활동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이전까지 존재했던 학생들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지향하였던 특별활동과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던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한 활동이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지향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라는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영역에서는 <표 1>과 같이 창의주제활동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표 1> 영역별 활동 체계표(교육부, 2015: 6)

영역	활동	학교 급별 교육의 중점
자율 활동	• 자치·적응활동 • 창의주제활동 등	<초>• 입학 초기 적응활동, 사춘기 적응활동 • 민주적 의사 결정의 기본 원리 이해 및 실천 • 즐거운 학교생활 및 다양한 주제 활동 <중>• 원만한 교우 관계 형성 •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문제해결능력 함양 • 폭넓은 분야의 주제 탐구 과정 경험 <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주체적 역할 수행 • 협력적 사고를 통한 공동의 문제 해결 • 진로·진학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주제 탐구 수행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교의 선택에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을 활용하여 범교과학습 주제를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은 범교과학습 주제를 편성·운영하는 데 상당 부분 활용되고 있다. 2019년도의 연구 결과(이수정 외, 2019: 30-31)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3% 초·중·고등학교를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무선 표집하여 교무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초1-2학년’은 평균 67.87시간, ‘초3-4학년’은 평균 50.59시간, ‘초5-6학년’은 평균 51.39시간, ‘중1-3학년’은 평균 34.94시간을 2019년도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범교과학습 주제로 편성·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교과 학습 주제가 편성·운영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 대한 설문한 결과, ‘자율활동(93.7%)’으로 편성·운영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참고로 국가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는 학년군별로 제시되지만 이를 학년별로 구분하면 3-9학년은 각 학년에서 평균 102시간(주당 3시간), 11-12학년은 각 학년에 평균 136시간(주당 4시간)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할 수 있다. 따라서 2019년도에 범교과학습 주제의 편성·운영 시간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의 50% 이상을 편성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34% 이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교과 외 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은 이미 범교과학습 주제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상을 고려할 때, 과연 범교과학습 주제 관련 교과 외 활동의 개설 및 관련 필수 시수 배당이라는 방안이 현재의 범교과학습 주제의 편성·운영 방법과 차이가 있는지, 교육 현장에서 어떠한 반응으로 귀결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현재 우리는 교육 현장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대강화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교육 자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 수준, 특히 총론 수준에서 범교과학습 주제를 별도로 시수 편제를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들어 의무 시수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4. 마무리

토론자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육 현장의 교사들에게 범교과학습 주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설문 또는 면담 등을 실시하여 왔다. 인상깊은 점은 여러 교과를 지도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은 범교과학습 주제가 기존 교과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중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범교과학습 주제를 제시하기보다는 기존 교과의 해당 부분을 통합하여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이에 비하여 주로 한 교과를 지도하는 중등학교 교사들은 범교과학습 주제와 관련하여 본인의 전공과 무관한 교육내용을 본인이 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범교과학습 주제를 새로운 교과로 신설하여 별도의 전문가가 지도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입장과 관련하여 우리는 범교과학습 주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교과 내용과 차별화되지 않았으나 구분되어 제시되는 주제의 개수 및 과도한 시수로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측면, 또는 공교육 교사가 지도 교과와 연계하여 학생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못할 만큼 현재의 시대와 사회의 이슈를 충분히 공감하거나 담아내지 못하고 단순히 주제만 주어지는 형태의 문제가 범교과학습 주제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방향의 핵심은 아닌지에 대하여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교과의 유연화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교과 교육내용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서 중요하였던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화두를 던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시켜나가는 한편 학생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학생 선택권을 확대해나가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 방안에 대하여 더 고려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포럼의 본래 의도대로 범교과학습 주제 간의 연계·통합의 방안에 보다 집중하여 기존의 교과 내용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범교과학습 주제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은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탐색하고 숙의하는 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5).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42].
- 박창언·김경자(2014). 법령과 국가 정책에 의한 범 교과 학습 주제와 요구 시
수의 문제 및 교육과정의 과제 탐색. 교육과정연구, 32(3). 71-93.
- 이수정·이승미·정영근·임유나(2019). 2015 개정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 실태
분석 연구(연구번호 CRC 2019-7).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토론문5

환경부 환경교육팀
박동명 사무관

환경부 학교 환경교육 지원 현황과 향후계획

박동명(환경부 환경교육팀 사무관)

□ 학교 환경교육 지원 현황

- 현재 환경부에서는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정책, 예산, 사업, 협력 이라는 네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첫 번째, 정책과 관련하여 제3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종합계획은 환경교육기반,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환경교육협력이라는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수립 중이며, 그동안 환경부가 해왔던 사업을 포함하여 학교 환경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 또한, 올해 5월 사회장관회의를 통해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국민환경역량 제고방안(‘20.5.22.)’ 이 상정되어, 관계부처와 환경교육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년 7월에는 전국 시도교육감 기후위기 교육 강화 비상선언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환경교육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 내에 정책연구단을 만들어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결과를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두 번째, 예산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예산 외에 신규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 중이며, 특히 폐교를 활용한 종합적 환경교육시설인 에코스쿨을 조성·운영하고자 기재부 및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5년까지 전국에 총 5개소의 에코스쿨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세 번째, 환경부의 학교 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푸름이 환경교실, 꿈꾸는 환경학교, 동아리 지원, 민간연계 지원사업, 유아환경교실, 우수환경도서 선정 등 다양한 대상과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협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환경교육 담당 장학사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을 추진해오다, 올해 처음 교육부가 기후위기문제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함께 학교환경교육 정책협의회를 추진하는 등 이전보다 좀 더 긴밀한 협력관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 2008년 이후로 12년간 환경교사가 채용되지 않다가, 올해 7명의 환경교사 임용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환경부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방향

-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는 환경교사, 환경전문가, 교육부 또는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환경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지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현재 교원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원대와 MOU를 맺고, 환경과목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하려고 준비중이며, 이외에도 내년부터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교에서 환경교양과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차기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차기교육과정 전략 로드맵을 만들고, 총론에 환경관련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 및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후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분석과 연구를 통해 교과서 및 참고자료, 수업적용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작·보급할 예정입니다.
- 환경교육은 범교과학습과 선택교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영역과 함께 전문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다양한 영역과의 협력과 연계, 그리고 학교 환경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환경교육과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경청하여, 향후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습니다.